

기독일보



2020년 2월 24일 월요일 (음력 2월 1일)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722-8165 제 1492호

"스스로 회개하며, 한 마음으로 재난 극복을"

한국교회 지도자들, '코로나19' 사태에 메시지
"섣불리 '심판'이라 판단 말고 성찰의 계기로
교회 바로 서면 사회 따라와… 주님 바라보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난관 극복하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며칠 새 폭발적으로 발병하면서 국민들 사이에 불안,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때일수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죄보다는 위로와 격려로 함께 재난을 극복할 것을 주문했다.

김명혁 목사(강변교회 원로, 전 한국복음주의협의회장)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죄 때문에 생겼다고 판단하기보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모든 문제는 교회와 신자들에게 있다. 우리가 회개해 바로 서면 사회는 자연히 따라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국민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난을 이겨나갈 수 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장, 숭실대 명예교수)도 "이런 상황을 죄에 대한 심판으로 섣불리 연결시켜선 안 된다. 다만 종교와 정치계를 막론하고 이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다"며 "따라서 지도자들은 겸허한 마음으로 크신 섭리 속에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지도자의 올바른 자세"라 했다. 특히 "한국교회 지도자들도 스스로의 교만과 죄를 깊이 회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서로 간 신뢰하고 격려하면서 단합된 모습으로 재난 극복의 길을 찾는다면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번 사태에 대한 긴급담화를 발표한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역시 "코로나19로 치료 중인 환자들의 조속한 쾌유와 격리 중인 귀국동포 및 가족들, 특별히 병마와 싸우는 의료진들,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지구촌 곳곳에서 코로나19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희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이 감염병이 완전히 종식되도록 천만 성도들이 합심해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한국교회에 당부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역시 "지금 상황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정부와 교회와 이웃사회와 더불어 이 난관을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교회가 이 상황에 발맞추어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세상에 불어 닥친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국교회총연합도 성명을 통해 "교회별로 기도제목의 공유를 통해 개인 기도에 힘쓰고, 회개를 통한 개인 신앙의 변화와 갱신의 기회가 되도록 힘쓰자"고 전했다.

특별히 많은 환자들이 나온 대구의 이상민 목사(대구서문교회)는 "모두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 땅의 모든 기독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 했다. ▶관련기사 4면



"주여, 이 백성을" 사랑의교회 성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쓴 채 예배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교회 지도자들은 '역병'이 도는 것에 대해 한국교회가 회개와 자기 성찰의 계기로 삼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바랬다. ⓒ 사랑의교회

정부, 이제야 위기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 격상

文대통령, 코로나19 관련 범정부대책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관련 범정부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감염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확인하여 조기 치료하는 것은 물론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방역 당국과 의료진, 나아가 지역주민과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27일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끌어올린 바 있다. 한 달 만에 '경계'에서 '심각'으로 끌어올리게 됐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중국에서 입국하는 중국인들의 제한 조치, 또 위기 경보 단계 '심각'으로의 격상 등을 촉구하며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볼 것을 주문했지만, 정부는 전문가 집단의 이러한 급박한 목소리를 외면해 오다가 '방역 실패' 이후 이제서야 뒤늦게 '격상' 조치를 내놓고 '신천지' 탓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지은 문소라 기자

"코로나19…우리와 이 나라 위해 기도하자"

"위로와 긍휼의 주님 바라보자 나약한 존재…
한계 깨닫게 돼 주님께 간절히 의지할 수밖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일인 23일 전국의 교회들은 현장 모임을 전격 중단하거나, 모이되 그 규모와 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마스크 착용 등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한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

특히 신천지 관련 환자들이 대거 쏟아진 대구에선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에서 주일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 영상으로 대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제일교회는 당초 현장 모임을 계획했다가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박창운 담임목사는 생중계된 이날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안과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대한민국을 치유하시도록 기도로 부르짖자"며 "이 나라의 죄를 묻기보다 코로나19로 병든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하자"고 했다.

대구동신교회도 이날 현장 모임을 갖지 않고 영상으로 대신했다. 권성수 담임목사는 "대구와 경북의 성도들이 더 죄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아니'(눅 13:4~9)라고 하셨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리라'고 하셨다"며 "불신자들은 우상, 신자들은 세속으로부터 돌아오라는 것이다. 회개의 기회이자 열매의 기회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했다.

대구서문교회 이상민 목사는 "인간은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깨닫게 된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자 신호다. 시련의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중요한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구 이외 지역에선 인천 주안장로교회가 이날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주승중 담이목사는 영상 설교에서 "교회의 이런 결정은 결코 신앙이 약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라며 "순교적 각오로 예배하자는 말도 아름답고 존중하나, 지금은 교회가 전염병 확산 방지에 더욱 모범이 되어야 할 때"라고 했다.

주 목사는 "우리가 모이지 않는 것이 사회와 민족을 위한 희생이다. 이런 결정은 절대로 불신앙적 조치가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정신을 본받는 고뇌에 찬 결정"이라며 "성도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내린 이 고뇌에 찬 결정에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교회가 위치한 지역(서울 서초구)에서 확진환자가 나온 사랑의교회는 비록 현장 모임을 중단하진 않았으나, 열화상 카메라를 출입구에 비치하는 등 긴장 속에서 주일예배를 드렸다. 오정현 목사는 "지금의 어려움에 실망치 말고 우리는 주님께 더욱 간절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 "30개 교회로 분립"

'1만 성도 파송' 방향 설명…
과도기 거쳐 내년 연말까지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가 23일 주일예배 설교를 통해 '1만 성도 파송운동'의 방향성을 전하면서 △30개 교회로 분립한다, △그럼에도 일정 기간 내 분당우리교회 교인 수가 5천명 이하가 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사임할 생각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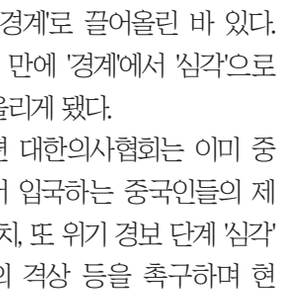
이 목사는, 우선 전자에 대해 이것이 당회의 결정이라면서 "지금 20개 교구인데 올 연말까지 과도기적으로 그 수를 30개로 늘린다. 그리고 내년 연말 30개 교회로 분립하게 된다"며 "프랜차이즈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교회 이름에서) '우리'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관여도 안 한다. 완전한 독립"이라고 했다. 이어 "30개 교회 담임목사는 15명은 우리 교회 부목사 중에 세우고 나머지 15명은 외부에서 추천을 받아 영성과 인격을 갖춘 좋은 분들을 세울 예정"이라며 "(그 결과) 분당우리교회는 주일 출석 5천명 이하로 줄어드는게 목표"라고 했다.

이 목사는 "(분립 과정에서) 제가 걸림돌이 되면 어쩌나 하는 고민을 했다. (그래서) '강제 안식년'이라고 이름을 정해봤다. (제가) 최대 1년 정도 (분당우리교회에서) 없어질 것"이라며 "그리고 복귀하는 날 기준으로 그 1년 뒤까지 5천명 이하로 숫자가 줄지 않으면, 사임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어떤 것도 강제로 하지 않는다. 모든 건 여러분의 자유"라며 "(분립된) 30개 교회로 가기 싫다면 동네 작은 교회로 가시면 된다. 이도 저도 싫다면 그냥 (분당우리교회에) 남으면 된다. 5천명 이하가 되지 않으면 사임하겠다는 것도 제 자유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올 연말까지 30개 교회 담임목사를 잘 세우고 과도기를 거쳐서 모든 성도가 자유함으로 잘 일어나리라고 확신한다. 그게 교회"라고 했다.

또 약 7년 전 이 목사가 '1만 성도 파송운동'을 선포할 당시 했던 '드림센터'의 교회 및 사회 화원 약속에 대해선 "이미 착수에 들어갔다"며 "이것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미라 무브먼트가 되길 원한다"고도 했다.

김진영 기자

권성수 목사
"현장 예배 중단,
불신앙적 조치 아냐"
» 4면



'광화문 집회 강행'
어떻게 봐야 하나?» 11면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된다"

소비심리 급격히 위축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


이마트타운 킨텍스점에 근무하는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 방역 관계자가 매장 앞 주변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코로나19가 전국 단위로 확산하면서 유통·외식·여행업계가 깊은 시름에 빠지고 있다. 확진 환자가 다녀갔던 점포가 짧게는 하루 길게는 사흘씩 휴점하면서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태이고,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하며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악의 1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올해 내내 이번 사태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1일 확진 환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임시 휴점을 한 대형마트·백화점은 7개 점포다. 이마트 성수·킨텍스·칠성·대구비산점, 홈플러스 광주계림점, 롯데백화점 전주점, 현대백화점 대구점 등이다. 이들 점포의 하루 평균 매출은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이다. 문제는 확진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추가 휴점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방역 작업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일단 확진 환자가 다녀갔다는 게 확인되면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라도 짧아도 하루는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매출 피해가 불가피하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확진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매번 이렇게 긴급 휴점을 해야 한다면 영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일례로 지난 7~9일 롯데백화점 본점과 명동 롯데면세점이 문을 닫으면서 포기한 매출은 약 800억원이었다.

휴점으로 인한 피해도 문제이지만, 소비 심리 위축이 더 심각하다는 게 유통업계 공통된 시각이다. 이달 초 코로나 공포가 절정일 때 마트·백화점·면세점 등은 고객이 급격히 줄면서 적게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 가량 하락했다. 지금은 상황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공통된 시각이다. 백화점 관계자는 "매출 감소폭이 최근 회복세에 있었는데,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피해 규모를 가늠할 수도 없게 됐다"고 했다. 마트의 경우 온라인몰 수요 증가로 매출 감소폭을 만회해왔으나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다른 유통 채널처럼 매출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소상공인 상황도 다르지 않다. 소상공인연합회가 회원 및 일반 소상공인 10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주 대비 매출이 50% 이상 줄었다는 비율이 47.4%, 30~50% 감소했다는 응답 비중도 28.7%였다. 전체 80%에 가까운 상인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있는 셈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13~20일 9424건의 소상공인 자금 신청이 접수됐다. 이들의 자금 신청 금액은 4896억원이다. 이 기간 소상공인들의 자금지원 접수는 매일 1400~1800건에 달했다.

여행업계는 줄도산이 얘기까지 나온다. 여행객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하나투어는 다음 달부터 2개월 간 단축 근무인 주3일 근무제로 인건비 절감에 나선다. 모두투어는 70% 유급휴직을 실시한다. 자유투어는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노랑풍선과 레드캡투어 등도 비슷한 처지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업계 1위인 하나투어가 주3일 근무제를 하고 있다면 다른 업체들이 어떤 상황인지 뻔한 것 아니냐"고 했다. 정부는 최근 관광업계를 위해 여행업계에 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사태 장기화로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2015년 메르스 수준으로 지속되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165만명 감소하고 관광수입도 4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정빈 기자

"박원순·이재명, 신천지 폐쇄? 종교탄압"

코로나 사태 정부·기관 조치에 대한 차명진 전 의원 목소리

차명진 전 국회의원(당시 새누리당 소속)이 21일 자신의 SNS에 "신천지는 이단이다. 그래도 우한폐렴의 창궐을 신천지 탓으로 돌리면 안된다"고 썼다. 차 전 의원은 "신천지가 너무 다닥다닥 붙어서 예배를 드린 탓이라느니 신천지 환자가 안하무인으로 검사도 안받고 돌아다녔다느니 이렇게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31번 환자가 자기가 감염된 줄 알면서도 그랬겠나? 밀착해서 생활하는 사람이 세상에 한둘이냐? 문제는 방역을 느슨하게 한 당국 탓 아니던가"라며 "지난 1월 중국 학생들이 떼거지로 대구에 수학여행 왔다 하질 않나"라고 했다.

차 전 의원은 "그런 걸 박원순(시장)이랑 이재명(경기도지사)은 신천지 교회 폐쇄까지 한단다"라며 "이게 독재다. 종교탄압이다. 자신들의 죄를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아쉬운 것은 자유 우파, 기독교인 사이에서도 이 참에 이단인 신천지를 처치해야 한다며 환호작약하는 소리가 들린다"면서 "내가 성경 지식은 짧지만 하나님은 벌써 이단 신천지를 처벌하고 계시다. 그것도 그 분만의 방식으로. 그걸 웬 인간들이 나서서 뒷북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무엇보다 자기와 종교가 다르다고 폭력으로 탄압하는 건 자유주의가 아니"라며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남이 내 의지를 꺾지 못하는 것이다. 전자는 사회주의적 자유주의, 사이비 자유주의"라고 했다.

한편, 차 전 의원은 전광훈 목사(한기총 대표회장)가 이끄는 광화문 및 청와대 앞 광야교회 집회에 참석해 연설한 바 있다.

김진영 기자

"정부와 의료진 믿고…" 발언, '세월호와 오버랩'

정세균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방역 실패 사과보다는 '자화자찬'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밤 9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확산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진정성 있는 사과 보다는 단지 "송구하다"며 정부는 잘하고 있고, 충분히 치료 가능한 병이니 협조해 달란 말에 국민들은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더 위험한 다른 곳들은 전혀 언급치 않은 채 정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교회와 대중집회에 대한 경고만 발해 교계는 더욱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는 말했지만, 위기 대응 단계를 현 '경계' 수준에서 '심각' 수준으로 격상시키지 않은 채 "코로나19의 감염 진행 상황이 더욱 엄중한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만 했다. 이날 경주에서는 한 40대가 코로나19로 사망, 변사체로 발견됐다.

또 정 국무총리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가 최고조를 향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 "코로나19는 초기 경증단계에서 전파력이 높지만, 치명률이 낮다는 특성이 있다.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격리해 치료하면 충분히 치유할 수 있는 질환"이라며 안심시켰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은 이제 개발이 시작된 단계이고, 변변한 치료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종교행사 등 좁은 실내 공간에 모이는 자리나 야외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하거나 온라인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아울러 국가의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위생용품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 무리한 대중집회 등을 통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 했다.

이에 종교계 한 관계자는 정 총리의 '종교행사' '무리한 대중집회' 등 언급에 대해 "더 위험한 대중교통과 지하철, 버스, 극장, 공연장 등은 아무런 언급하지 않고 굳이 종교행사나 집회를 지적하느냐"며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다고 '옳다구나' 하며 이참에 세를 죽이려 하느냐"고도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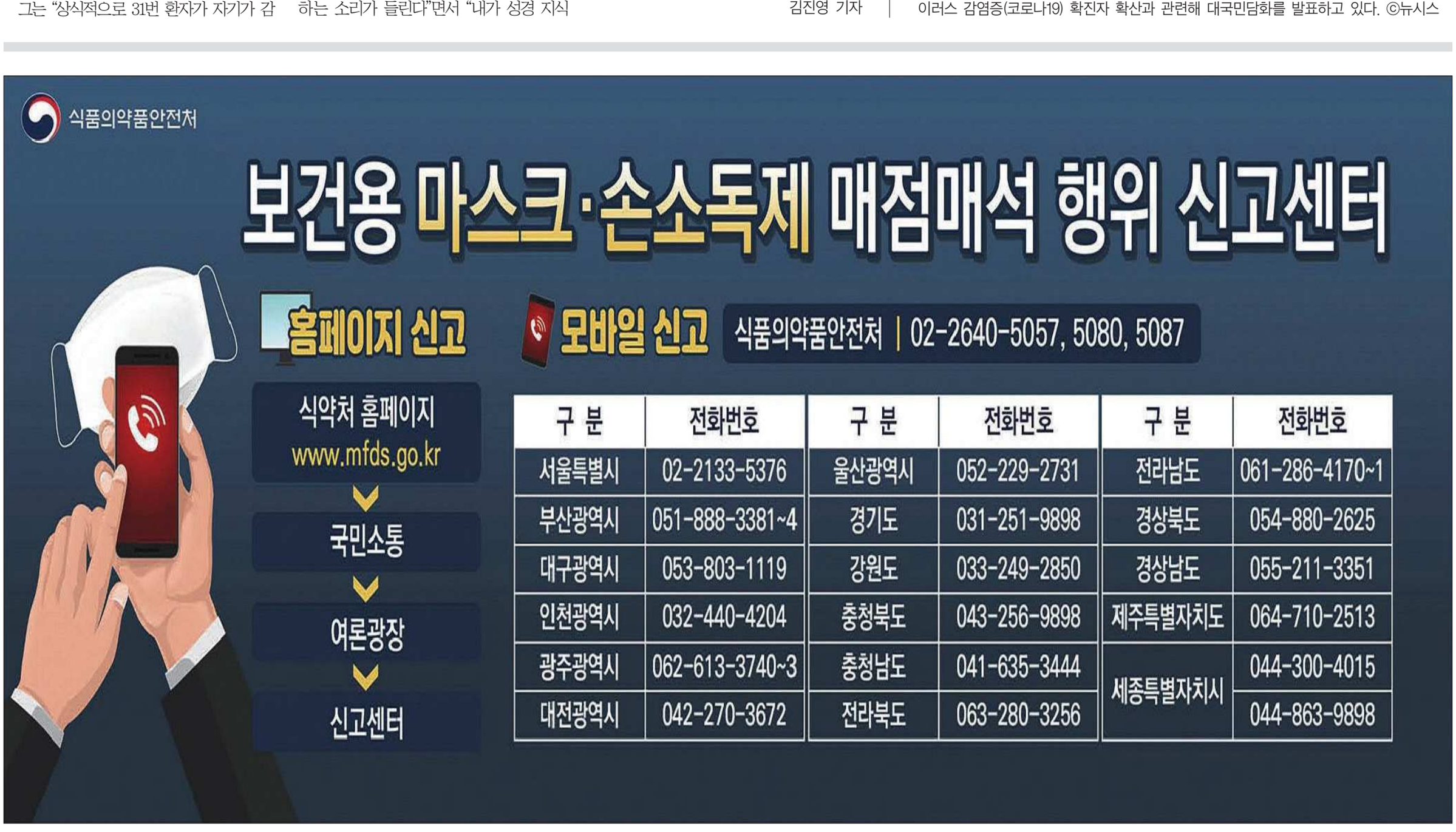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정 총리는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내야 하고 이겨낼 수 있다. 우리의 선진 의료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동안 감염병 대응 경험도 충분히 축적돼 있다. 우리는 이미 과거 사스와 메르스를 이겨낸 경험이 있다. 정부의 노력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코로나19 역시 극복해 낼 수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정부와 의료진을 믿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세월호 때 '가만히 있으라'던 선내 대기 지시가 오버랩되어 떠오른다"면서 "더 이상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 당장 중국인들 입국을 제한하고, 더 강도 높은 위기 대응으로 자국민들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 일간지 김광일 논설위원은 "정부 방역대책 발표, 무시하지는 마시되 믿지도 말라"고 말하고, "방역 대책 구멍 뚫렸다"며 "이제 각자도생의 심정으로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아무쪼록 이런 때 일수록 정부의 대책 말고, 자신의 몸은 이제 자신이 지켜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왔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시고, 건강 보살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소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확산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02-2133-5376	울산광역시	052-229-2731	전라남도	061-286-4170~1
부산광역시	051-888-3381~4	경기도	031-251-9898	경상북도	054-880-2625
대구광역시	053-803-1119	강원도	033-249-2850	경상남도	055-211-3351
인천광역시	032-440-4204	충청북도	043-256-9898	제주특별자치도	064-710-2513
광주광역시	062-613-3740~3	충청남도	041-635-3444	세종특별자치시	044-300-4015
대전광역시	042-270-3672	전라북도	063-280-3256		044-863-9898

이상원 교수·변희수 하사…"동성애 전체주의 확산"

'나쁜 인권 규탄' 위한 한교연 기자회견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한교연) 동성애·인권공동대책위원회가 최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나쁜 인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길원평 교수(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은 "총신대 이상원 교수는 수업 중 동성애 유해성을 말하기 위해 항문성교를 직접적으로 묘사했었다. 이는 성경말씀과 보건 의료적 사실에 근거할 뿐인 것인데 (총신대 학생회는) 이를 성희롱이라고 반발했고 그러자 총신대 성희롱대책위는 지난해 12월 13일 '아무 문제없다'고 결론냈다. 교원인사위도 '징계에 넘기지 말라'고 했다"며 "그러나 관선(법인)이사회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돼 있다'며 성희롱대책위와 교원인사위의 결정을 무시했다. 이상원 교수를 재차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했다.

이어 "이상원 교수는 성경과 보건의학적 근거에 따라 동성 간 성관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런 점에서) 관선이사회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총신대 건학이념에 반(反)했다"고 지적했다.

김영길 목사(바른군인권연구소 소장)는 트랜스젠더인 변희수 하사 사건에 대해 "인권위는 급기야 변 하사의 군복무를 옹호하기에 이르렀다"며 "그러나 군대는 무기를 다루는 집단이다.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는 군대 기강을 무너뜨린다. 2019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군대 내 트랜스젠더 복무 금지를 판결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지지했다"고 했다.

이어 "2010년부터 인권위는 동성애 방지를 위한 '군형법 92조 6항'을 지속적으로 폐지하라고 외쳐왔다. 군형법은 군대 내 '동성애 인권화'를 막는 최후 보루"라며 "여호와의 증인 대체복무도 옹호했던 인권위다. 이는 헌법 20조 '정교분리' 원칙을 어긴 것이다. 최근 대법원도 여호와의 증인 111명에 대해 무더기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예장통합 함해노회 동성애대책위원장 고형석 목사는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전체주의가 확산하고 있다. 1단계는 인권위 같은 국가기관이 '성적 지향'을 빌미로 동성애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격상시키는 것"이라며 "관공서 등지에서 이뤄지는 '동성애 인권화 교육'이 그 예다. 동성 간 성행위의 위험성을 가짜뉴스로 낙인 찍는 언론보도도 그 연장선이다. 바로 동성애의 정상화 작업"이라고 했다.

고 목사는 "그 다음 단계는 동성애를 비판하는 발언 자체를 비정상으로 치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며 "이는 정치투쟁이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신학교와 교회마저도 '동성애를 비판 한다'고 처벌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원래 기독교 대학들이 '세례 교인'만 교직원으로 채용했지만 최근 이 조항을 고치고 있다"며 "비기독교인이 이것이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게 발단이었다. 이에 인권위는 인권을 빙자해 기독교대학들에 '비기독교인' 채용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노형구 기자


길원평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김영길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고형석 박사가 발언하고 있다.


주요셉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독교대학들이 건학이념을 사수할 권리도 인권이다. 인권위가 이를 '차별 행위'로 낙인찍어 기독교대학의 권리를 빼앗으려 했다"며 "동성애를 인권으로 둔갑시켜 지지하는 것처럼 (비기독교인 채용도) 인권을 빙자해 '악'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고 목사는 "프랑스, 미국, 영국 등과 달리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우선시했다. 이는 국민주권에 기초해 '영역주권'을 명확히 기술한 것이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입법·행정·사법보다 앞선다는 것"이라며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를 포함해 '법 앞에 평등', '양성평등', '선거평등', '성별·사회적 신분의 평등'만이 명시됐다"고 했다.

그는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항은 헌법이 명시하지 않은 평등들도 광범위하게 기술했다. 국민적 합의를 배제하고 자의적으로 인권을 정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요셉 목사(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표)는 "인권위는 '친 동성애 및 가짜난민 옹호정책'을 펼치며 그 근거로 UN 세계 인권 선언문을 들먹인다. 그러나 UN총회가 14년 동안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지만 이는 무시하고, 이 외에 총회 산하 위원회 차원에서 결의된 '동성애 합법화'는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가짜인권이고 차별적 인권"이라고 했다.

이어 "세계인권선언문 제30조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짓밟는 어떠한 권리와 자유도 불허 한다'고 나왔다. 그런데 동성애자·LGBT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국민들을 속이고 세계 인권선언이 마치 동성애자를 비롯한 LGBT의 독점물인 것처럼 강변해왔다"고 비판했다.

주 목사는 "인권위는 성소수자 등 특정 소수만 절대 보호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다수 역차별'을 당연시하고 있다. 이는 소수에 의한 다수지배 체제인 파시즘과 전체주의를 용인토록 한다"며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항 '성적 지향' 조항도 그 저 권고사항이다. 형법 조항이 아니다. 2011년 인권보도준칙도 에이즈와 동성애 상관관계를 보도 못하도록 했는데 이는 언론 자유의 탄압"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주최 측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총신대 관선이사회가 이상원 교수를 징계위에 회부한 결정은 부당하고 월권적이다. 동성 간 성관계의 문제 지적은 성경적·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며 교육 목적에 합당한 내용"이라며 "총신대 성희롱·성폭력대책위도 이 교수의 발언은 성희롱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재단이사회는 이유 없이 이 교수 사안을 징계위에 회부했다. 당장 철회하라"고 했다.

이어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의 전역에 간섭한 국가인권위를 규탄한다. 군대의 전투력을 저하하려는 어떤 부당한 간섭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독교대학의 교직원 채용에 국가인권위가 부당하게 간섭한 것도 규탄한다. 총신대, 한남대, 숭실대에 대한 비기독교인 채용 권고는 종교의 자유 침해, 정교분립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노형구 기자

美남침례회, 性학대 예방 및 대응 나서

'성적 학대 예방 행정관' 임명

미국 최대 교단인 남침례회(Southern Baptist Convention, SBC)의 국제선교위원회(The International Mission Board, IMB)가 성적 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CP)가 18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에서 열린 IMB 이사회 전체회의에서 폴 치트우드(Paul Chitwood) IMB 대표는 교육 컨설턴트와 법의학 상담사인 소머 노왁(Somer Nowak)을 '성적 학대 예방 행정관'으로 선정했다고 버지니아 주 리치몬드에서 발표했다.

노왁은 CP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성적 학대 예방 행정관'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IMB의 성적 학대 관련 문제를 위해 치열히 싸우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자신의 일과 관련된 직원들을 만나고 IMB의 성적 학대 혐의 처리 방법에 대한 이전의 권고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행정관으로서의 첫 주를 보내고 있다며 "저는 아이들과 가족들의 안전과 행복에 대해 열정적이었고, 이 자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회사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노왁은 이전에 체로키 카운티 교육 위원회에서 고문으로, 앨라배마 주 중앙에 위치한 체로키 카운티의 아동 옹호를 위한 교육 컨설턴트로 일했다고 한다. 또한 IMB는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에 본사를 둔 외부 기업 그레이 플랜트 무티(Gray Plant Mooty, GPM)를 고용해 개선해야 할 분야와 기준에 대해 검토를 이행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지난 5월 발표된 조사에서 GPM은 일부 개선 사항에도 불구하고 "IMB의 과거 사례 처리와 관련하여 많은 중요한 우려 사항을 확인했다"고 결론 내렸다. GPM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IMB의 현재 정책과 절차는 현대적인 모범 사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그러한 우려를 염두에 두고, GPM은 IMB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부서는 아동 학대 및 성희롱(폭행 포함)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아동 안전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와의 정기적인 교육, 그리고 범죄 정보 접근법에 의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노왁은 "우리 회사의 가장 큰 과제는 이러한 주제에 대해 잘 훈련되고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제에 전념하고 있으며 안전과 보안 분야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강연숙 기자


소머 노왁 (Somer Nowak) ©IMB



“교회가 예배 지침 속히 마련하길”

교계연합단체들 ‘코로나19’ 관련 성명 발표

한국교회 연합단체들이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먼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성명’을 21일 발표했다.

한교총은 “작금 국내에서는 코로나19가 지역확산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신천지 집단의 대구집회처에서 발생한 슈퍼 감염은 대구는 물론 모든 교회들의 우려를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국교회는 예배 및 집회에 관한 지침을 속히 마련하여 시행해주시기 바란다”며 “회원 교단에서는 심각한 지역의 교회가 예배의 잠정 중단 등의 결정을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권고하는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슈퍼 전파 장소가 된 ‘신천지 대구교회’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교주 이만희)의 집회처로서 기독교 주요교단에서 이단으로 결의한 바 있는 집단이라는 점을 구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교총은 “전국교회에서는 교회가 소속한 교단의 지침에 따르되, 지역의 상황을 감안하여 예배와 집회의 잠정 중단과 방식에 관한 결정을 신중하고 신속하게 내려주셔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지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또한 교인들의 행동요령을 전파하여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예배당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회원 교단에서는 지침을 통해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고 교회 내 침투 방지를 위해 정부와 방역당국의 방침에 적극 협력하시기 바라며, 교회당과 부속 건물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발열이 있는 이나 호흡기 질환자의 출입을 제한하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감염자들의 교회당 출입과 예배 참석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여 교회 안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만연하는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며, 교회별로 기도 제목의 공유를 통해 개인 기도에 힘쓰도록 하며, 회개를 통한 개인 신앙의 변화와 갱신의 기회가 되도록 힘쓰자”고 덧붙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도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목회서신을 21일 발표했다.

이들은 “코로나19 감염증이 외부 유입 단계를 넘어 지역 확산 단계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위기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이 특히 대구 및 청도의 시민과 교회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지금 상황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자’고 했고 ‘정부와 교회와 이웃 사회와 더불어 이 난관을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라19의 지역 확산 상황에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보되, 공동체가 지니는 상호의존성의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 ‘우리’를 위한 개인위생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자신에게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우리’를 위해 신속히 정부가 정한 매뉴얼대로 공개적인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며 “대재난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개인이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우리가 상호의존적인 생명의 안전망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어 깊은 생태적 감수성을 가지고 다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국 어디도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과 공동체를 지키라고 주신 선물이지 결코 우리의 신앙의 나약함이 아닙니다. 다만 두려움이 우리의 존재 전체를 집어삼켜 우리 안의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려 이웃을 향한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 스스로 예방에 힘쓰면서 상대를 상호 돌봄의 눈으로 바라봐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자”고 강조했다.

NCCK는 “전염병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주장하고 특정 국가의 기독교정책을 그 근거로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 재난과 위기 상황 속에 그리스도인의 책무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지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며 속죄양을 삼는 것이 아니”라며 “자기 의에 충만하여 선과 악을 가르는 심판자의 위치에 서서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는 신앙적 오만이다. 결코 세상을 구하는 힘이 아니”라면서 “국적, 인종, 종교, 이념을 떠나 가장 위급한 이에게 가장 먼저 구호를 실천하는 인류공동체의 기본원칙을 되새기자. 혐오와 차별이 아닌 상호 연대와 인류애의 정신으로 대재난을 극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된 교회들에 당부 드린다. 교회는 하나님의 세상 목회와 선교와 정치에 참여하도록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공동체다. 하나님의 백성공동체로서 교회는 이웃을 위한 교회, 세상을 섬기는 교회”라며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 교회의 공동체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집회는 공적 유익을 우선시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재구성돼야 한다”고 했다.

또 “교회당에서 감염 위험이 크다는 사실이 최근의 사례로 재확인됐다.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에 빠진 시기 우리의 신앙 형식이 세상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 되선 안 된다”며 “우리는 이 위기에 일상 속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와 경건을 훈련하고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제 곧 다가오는 사순절 기간에 교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묵상집이나 공동예배자료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이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는 정부기관에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다. 교회 역시 이 상황에 발맞춰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세상에 불어 닥친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대구지역은 물론 각 발생지 교회에서 주일예배를 포함하는 모든 집회를 당분간 중지하자는 제안들이 있다. 이런 제안들은 결코 우리 신앙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모든 교단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침이 필요하다. 본회 역시 향후 2주간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적합한 근무형태를 취할 것이다. 이 위기 상황에 책임적으로 우리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원한다. 이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교회가 상호의존성과 자기 비움의 영성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했다.

김진영 노형구 기자





“현장 예배 중단, 불신앙적 조치 아냐”

예배 중단 대구동신교회 권성수 목사 설명 “확진자 나오면 하나님 영광 가려…사회 염려 불식”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20일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예배당 현장에서의 모든 예배와 모임을 중단하고 영상 및 가정 예배로 대체한 대구동신교회의 담임 권성수 목사가 21일, 교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이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권 목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는 창조질서와 자연법칙이 있다.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는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으로, 성도라 할지라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감염될 수 있다”며 “대구동신교회는 대구·경북 지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다중시설이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 “현재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확진자에게 집중되는 상황”이라며 “이때 대구동신교회 성도들 중에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더욱이 이단이 이단교회의 폐쇄에 따라 기성교회에 들어가 예배드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권 목사는 “따라서 대구동신교회는 정부와 공공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는 정부와 대구광역시 차원의 권면이며, 대구기독교총연합회와 (예장 합동) 수성노회 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영향력 있는 교회가 이와 같은 결정으로 현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이는 절대 불신앙적인 조치가 아니”라면서 “대구동신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의 어려운 결정에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권 목사는 “주일예배는 영상예배로 드리게 되니, 평소 참석하셨던 예배 시간에 따라 대구동신교회 홈페이지 혹은 유튜브를 통해 각 가정에서 영상예배를 드리시기 바란다”며 “가정에서 영상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요 4:24). 집중하여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예배와 모임이 약 2주간 중단된다 할지라도, 성도님들을 섬기는 사역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교역자와 직원이 비상을 걸고 정상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며, 성도님들 한분 한분에게 전화를 드려 더욱 열정적으로 섬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은 두려워말고, 이러한 때에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열매를 맺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며,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아픈 가슴으로 이상의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라며 “‘코로나19’ 발병과 교회의 대응에 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은 이번 주일 영상설교를 통해 들으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이 환란 가운데 지켜 주실 것을 기도하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갈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코로나19’ 충격에 대구·지역 교회들, ‘비상조치’ 시행

“자발적·선제적 조치… 사회 염려 불식”
“유언비어·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구 집단 발병으로 발생한 충격이 현지를 비롯해 한국교회 전체로 번지고 있다. 대구 교계에선 주일예배 자체를 현장에서 드리지 않고 영상으로 대체하는 교회까지 나왔다. 서울 명성교회에서는 사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까지 이뤄졌고, 부산 온천교회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해 비상이 걸렸다.

먼저 대구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장영일 목사, 이하 대기총)가 20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담화문을 발표했다. 대기총은 “당분간 전교인이 참여하는 예배는 최소화해야 하겠다. 부득이한 주일예배를 제외한 모든 공예배와 기도회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란다”며 “주중 각종 소그룹 모임과 기관 단위 행사는 전면 취소하고 찬양대 연습도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예배당 건물 전체에 대한 전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카페를 비롯한 친교장소도 가급적 운영을 중지해 주시기 바란다”며 “발열 및 호흡기 질환자는 교회 출입을 제한토록 하고, 입장하는 성도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대구와 인접한 경산의 최대 교회인 경산중앙교회(담임 김종원 목사)도 이날 임시당회를 열고 “교회 폐쇄”를 결의했다. 이 교회 역시 “자발적, 선제적” 조치라며 “경산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다중시설”로서 “사회적 염려를 불식”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배는 중단될 수 없기에, 주일예배와 금요성령집회는 인터넷 중계로 드린다”고 했다.

서울에서는 명성교회는 교구 목사와 성도 5명이 청도를 방문했던 것과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취했다며 "주일예배 제외 모든 모임 중단”한다고 밝혔다. 명성교회는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청도 대남병원 내 농협 장례식장에 지난 2월 14일 본 교회 교역자인 31교구 교구장 목사와 5명의 성도들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교회는 “이에 방문을 확인한 뒤 곧바로 교구장 목사를 자가격리 하도록 조치했다”며 “방문한 성도와 당시 상주에게도 격리해제시까지 교회 방문을 금지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청도 농협 장례식장에 다녀온 지 8일이 지났지만 관련된 분들에게서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은 전혀 없으며 보건소의 지침대로 2주 동안 외출을 자제하도록 적극 권면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전보다 더욱 철저히 방역을 실시했고, 관련 매뉴얼대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와 관련해 유언비어나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 온천교회와 연관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노19) 환자가 다수 나온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 교회는 예장 고신 측에 소속돼 있다. 부산시는 이날까지 확진자 16명 중 8명이 온천교회와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회를) 잠정 폐쇄 조치 했다”며 “2주간 교회를 방문한 성도에 대해 자가격리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온천교회 노정각 담임목사 등 당회원들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 지역 감염을 최소화 하고자 최초 확진자가 나온 청년부 전원 및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교인 전원 자가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초 확진 소식을 접한 21일 금요일 저녁 담임목사 주관 당회원들을 긴급 소집해 다음날인 22일 토요일 새벽기도부터 2주간 교회 시설 전체 폐쇄 조치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특히 “교회 내 신천지 잠입 성도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두고 조사 중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더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며 또 지역 감염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대형 교회들의 ‘코로나’ 대응은…

열화상 카메라, 예방상담소… 환자 속출 후 첫 주일예배, 긴장 속 예방에 만전 기해

최근 며칠 새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하면서 23일 주일예배를 앞둔 전국 교회들이 긴장했던 바 있다. 교회들은 대체로 예배당에서 주일예배를 드리되 감염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일과 주중의 예배를 제외한 거의 모든 모임들을 당분간 중지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교회 측은 그러면서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다양한 모임들이 진행되어 온 교회로선 매우 파격적인 조치”라고 덧붙였다.

또 “예배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대성전으로 들어가는 모든 출입구에 열감지기를 설치하기로 하고 이미 실시해 온 방역과 손소독약 비치 등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회당 모든 공간에 강력한 방역을 매일 실시하고 있다”며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기침이 나거나 열이 있는 분들은 집에서 방송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예배드리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열감지기 5대를 설치하고 체온계를 비치한다”면서 “(23일) 주일예배부터 성도 등록증을 확인한 후 출입을 허가한다. 성도 등록증 소지자의 경우 문제가 생기더라도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는 22일 오전 6시 개최하기로 했던 제4차 리더스 컨퍼런스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교회 측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교회 관내인 서초구에서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리더스 컨퍼런스는 사랑의교회 평신도 리더 6천여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예배로 정례적으로 드려지고 있다”며 “그러나 지역 전파 감염을 막고 보건당국의 지침에 협력하는 의미에서 전격적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사랑의교회는 23일 주일예배를 드릴 본당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 5대를 설치했다.

인천 주안장로교회(담임 주승중 목사)도 23일부터 29일까지 주일예배를 포함한 모든 현장 예배와 모임을 중단하고 교회 출입을 통제한다. 교회 측은 22일 “인천 부평지역에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당회는 교회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교회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자발적 활동 중단’ 조치를 결의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교회는 23일 주일예배는 가정예배로 대신하고, 주승중 담임목사의 설교를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송출했다.

분당우리교회는 △예배 사역과 관련된 필수 봉사 외에 다른 사역들은 잠정 중단(그 외 각 부서 필수 사역은 잠정 중단하거나 최대한 축소 진행) △송림 및 드림센터의 예배실 외 장소 당분간 사용 금지 △주일, 주중 예배(수요예배, 금요기도회)의 인터넷 생중계 병행 등의 원칙을 정했다. 또 “당분간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진행하지 않고, 전화 등으로 성도님들을 섬긴다”고 했다. 병원 심방도 잠정 하지 않기로 했다. 장례는 간소화 하고 최소의 인원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온누리교회(담임 이재훈 목사)는 “예배 외에 모든 양육과 사역모임을 취소한다. 예배를 위한 장소 외에는 교회 내 모든 공간을 사용할 수 없다”고 알렸다. 새가족반도 당분간 운영하지 않는다는 교회는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4월부터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새에덴교회(담임 소강석 목사)는 교회 1층 입구에,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 ‘코로나19 예방 상담소’도 마련했다. 교회는 “질병관리본부가 제안하는 방안에 적극 호응하고자 한다. 이번 확산의 윤곽이 드러나고 대책이 강구될 때까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실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28일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리기로 했던 ‘3·1절 기념예배와 기념식’도 취소됐다. 한교총·대한민국 3.1회·평통연대 3개 기관이 3·1절을 기념하기 위해 공동주최하는 예배였다. 김진영 노형구 기자

아시아 교회들,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 자구책

코로나19로 인해 아시아 국가들의 교회들이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미국 기독교 매체 처지리더스가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현재 77건의 코로나19 확진자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6명의 환자들은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 보건부(MOH)는 교회들이 예배를 계속할 수도 있지만,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등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일부 교회들은 교구민들 사이에서 바이러스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2주 동안 모든 예배와 회의를 중단했다고 한다. 또 MOH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인 그레이스총회(Grace Assembly of God)에서 감염된 사람과 접촉했을 전 직원들에게 가정 검역 명령을 내렸다. 윌슨 테오(Wilson Teo) 목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후 지난주 싱가포르 국립 전염병 센터(NCID)에 입원했다. 적어도 다른 한명의 직원도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테오 목사는 자신의 열이 가라앉았다고 최근 교구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한다. 또 교구민들에 의해 시작된 "지상 기도 운동"이라는 기도모임을 통해 젊은 사람들부터 나이든 사람들까지 교회 구성원들은 교회와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단식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하기도 했다. 싱가포르의 빈센트 추 목사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집회에서 연설한 가운데 “이런 시기에는 대중과 싱가포르를 위해, 병원 직원들을 위해 그리고 중국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



싱가포르에 위치한 시티 하베스트 교회. 이 교회는 오프라인 모임을 중단하고 주일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기로 결정했다. ©Creative Commons

한편, 홍콩에서의 예방 조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홍콩 카톨릭 교회의 존 혼 통(John Hon Tong) 추기경은 온라인으로 미사를 보는 것을 승인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가톨릭 교회는 또한 직접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청했다. 통 추기경은 그 이후로 미사는 2주 동안 중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재의 수요일 행사조차 취소되었다고 한다. 기독교 비영리 단체인 ‘아시아의 복음’(Gospel for Asia)은 이번 사순절 동안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강연숙 기자

UMC 분리, 한인교회 선택 '복음주의 전통 감리교단'

현 장정 바탕으로 동성결혼, 동성애자 목사 안수 불허



교단 분리 후 한인교회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을 설명하는 (좌 부터)류재덕 목사(연합감리교회 한인 총회장), 류계환 목사(선교 총무), 안성주 장로(전국평신도연합회장)



이날 설교한 김낙인 목사는 "역사적인 자리다. 새로운 부흥과 미래를 여는 자리가 될줄 믿는다"며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참된 길, 영광의 길을 걷자"고 전했다.

동성결혼과 동성애자의 성직 허용 문제로 난항을 겪어온 미국연합감리교(The United Methodist Church, 이하 UMC)가 "교단 분리를 통한 화해와 은혜의 길" 합의안에 따라 오는 5월 총회에서 감리교 전통을 지키는 복음주의 보수교단(NEW MC(Methodist Church) 가칭)과 동성애를 허용하는 진보교단(PS(Post-Separation) UMC 가칭)으로 분리될 전망이다.

지난 16일,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김낙임 목사)에서 진행된 UMC 교단 상황 설명회에는 남가주 한인연합감리교회 목회자들과 평신도 대표들이 대거 참석해 한인 교회가 나아갈 향후 진로를 모색했다.

동성애 반대 의견이 강한 미국 내 UMC 한인교회들은 감리교 전통을 지키는 새로운 보수교단으로 대거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보수 교단으로 옮길 경우(타 교단 제외) 교회 건물과 재산, 목회자 은퇴 연금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교단 분리에 따른 소음 또한 적을 것으로 보인다.

'UMC 분리'에 대해 교단 내 목회자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갈등을 해결하는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이 될 수 있고, 교단 정책에 따른 교인들의 이탈 없이 목회와 사역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분리 후에도 선교나 전도에서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어, 분리 후 진보그룹에 속한 미국 교회를 개교회 차원에서 협의 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오는 5월 총회 후 분리가 확정되면 복음주의 전통 교단에서는 현재 전통주의 장정을 기본으로 동성결혼을 불허하고 동성애자 목사 안수 또한 허용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진보 성향의 교회들은 현 UMC 장정에 명시된 동성애, 동성결혼 및 주례, 동성애자 목사 안수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교회 내 동성결혼 허용, 동성애자 목사 안수 및 감독 선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UMC 지역 연회가 복음주의 전통 감리교단으로 이동을 결정했다면 교회는 별도의 과정 없이 연회와 함께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내 대부분의 감리교 연회가 진보적 또는 중도적 성향으로 PS UMC에 남을 확률이 높아 대다수 한인교회가 개교회 투표를 거쳐 복음주의 전통 감리교단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분립 과정은 이렇다. UMC 내에서 전통 감리교단으로 이동을 원하는 교회는 오는 5월 교단 총회 이후 교회 임원회에서 교회 총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고 60일 이내에 감리사에게 교회 총회 개최를 통보해야 한다. 이후 연회와 "분리 합의서"를 작성하고 "분리 날짜"를 결정하게 된다. 교단 분립 이후에는 사인과 간판, 판촉물, 레터 헤드 등 UMC 이름과 로고가 들어간 교회 내 모든 명칭과 사인을 변경해야 한다. 연합감리교 한인총회는 교단 분리에 따라 교회 임원회 명단, 교인 명단, 교회 재산 현황 등 교회 관련 서류 점검과 확보를 당부했다.

현재 UMC 내 감리교 정신과 전통을 고수하는 복음주의 목회자들은 교단 내 보수 그룹인 웨슬리안언약협회(WCA Wesleyan Covenant Association)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통주의 감리교단 창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말경 또는 11월 초에 창립총회를 갖고, 2021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감리교단 연회를 통해 교단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세계선교의 동참, 기도의 연합으로"

열방 품는 기도 성회 2020년 첫 기도성회



DCMI 대표 정태회 선교사



연합 기도와 찬양 후 마무리 기도하는 박연담 목사

워싱턴주 열방 품는 기도회 지난 16일 훼드럴웨이 새교회(담임 원호 목사)에서 2020년 첫 기도 성회가 개최하고 워싱턴주 지역과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의 불을 지폈다.

원 호 목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선교 부흥은 기도에서 시작된다"면서 올 한 해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를 통해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요나의 사역 실패"(요나서 4:1-11)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정태회 선교사(DCMI 대표)는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이 자리가 세계 선교를 지원하고 담당하는 자리임을 기억하라"며 "교계가 한 마음으로 연합해, 기도의 모임이 끊어지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 선교사는 이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도들은 선교를 위한 기도의 불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음을 외치고 우리가 보고, 믿고, 체험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선교의 역군이 되자"고 강조했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핍박 가운데 복음의 문이 닫히는 나라들의 복음화와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의 영적 부흥, 한반도 통일과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한편 워싱턴주 지역교회의 연합과 부흥, 회개를 외치며 선교지의 복음 전파와 선교사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워싱턴주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는 2008년 10월 워싱턴주 지역 세 교회가 교회 연합과 부흥, 회개를 외치며 일어난 기도운동으로 워싱턴 주 각 지역 교회와 선교단체의 연합으로 확대돼 선교를 위한 기도의 불을 이어오고 있다.

폴원 기자

월드미션대학교 '상담자 위한 EMDR 치료 워크숍 훈련'



월드비젼대 상담학 송경화 교수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 팍(Buena Park, OC)에 위치한 월드미션 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 상담대학원 OC 캠퍼스는 2월 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담자를 위한 EMDR(Eye Movement Desensitization and Reprocessing Therapy) 치료에 대한 워크숍과 훈련"을 제공한다.

EMDR 치료는 양측성 자극을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불안, 우울, 공포증, 낮은 자존감, 과거의 부정적 경험으로 인한 상처 등에 단시간에 만족스러운 효과를 보이는 심리치료 기법의 하나로 내담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 월드미션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송경화 교수의 인도로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은 EMDR에 대한 이론 공부와 강사의 시연을 관찰하고 직접 실습을 해 봄으로 실제 EMDR을 본인의 상담과 심리치료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회비는$100(점심식사 및 교재 포함)이며 월드미션 대학교 재학생들에게는 50% 할인이 적용된다.선착순 15명 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당일 신청은 받지 않는다. 이번 교육 과정은 상담자를 위한 교육이며, PTSD 치료를 위한 실제 EMDR 세션이나 자격증 과정은 아니다.

한편 월드미션 대학교 상담대학원은 LA와 OC 두 곳의 캠퍼스에서 상담학 석사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상담실습과 슈퍼비전을 통해 전문적으로 상담을 훈련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교육하고 있다. 또한 부설 상담소에서는 지역 한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전 대륙에서 일어나는 NK선교, 큰 그림 봐야”

선교통일한국협의회 해외 NK사역자 초청 포럼 개최

선교통일한국협의회-워싱턴북한선교회 MOU 체결식 열려



해외 NK사역자 초청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선교통일한국협의회(선통협)와 워싱턴북한선교회가 MOU 체결식을 열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워싱턴북한선교회 노규호 사무총장, 선통협 조요셉 상임대표.ⓒ이지희 기자

한국 내 교회와 단체, 개인이 추진하는 통일선교를 넘어서 전 세계 각 대륙에서 일어나고 있는 통일선교의 방향과 비전, 사역 내용을 듣고 선교 전략을 나누는 포럼이 처음 열렸다.

선교통일한국협의회(선통협, 대표회장 김종국·상임대표 조요셉)는 21일 서울 동작구 물댄동산교회(조요셉 목사)에서 북미, 남미, 오세아니아, 중국 대륙 등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통일선교 사역자들을 초청해 ‘해외 NK(North Korea)사역자 초청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주로 이민 1세, 1.5세 한인사역자들이 발표자로 나섰으나, 브라질 현지인 여성 사역자 한 명이 통일선교사역에 대한 간증을 직접 나눠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선통협 통일선교위원장 조기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사역보고 시간에는 워싱턴북한선교회 사무총장 노규호 목사가 워싱턴 지역교회 기반의 NK사역에 대해 소개했으며, P의대 Y교수가 다국적 사역팀 사례, L자매가 소속된 브라질 교단과 선교단체의 NK사역 사례, 레아미션 K선교사가 캐나다에서의 NK사역 사례, 예수전도단 M선교사가 조중접경지역의 NK사역 사례, J선교사가 호주에서의 NK사역 사례를 각각 나눴다.

노규호 사무총장은 “북방선교의 핵심은 북한선교이고, 북한선교는 땅끝선교”라며 “북한선교에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적 생각을 가진 교회들, 또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선교부가 있지만 활동하지 않는 일부 워싱턴 지역교회가 실질적으로 북한선교를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5월 워싱턴지역 한인교회협의회 증경회장 세 명이 모여 설립된 워싱턴북한선교회는 2019년 4월 미 연방정부 IRS로부터 비영리기구 승인을 받았다. 복음통일과 북한선교를 위한 기도회, 북한선교학교, 전략세미나 등을 열어 워싱턴 한인 디아스포라 성도들의 북한에 대한 이해와 통일 준비를 돕고, 탈북민 선교사 양성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브라질 현지 교단 파송 선교사로 6년 전부터 핍박받는 국가에서 교육, 스포츠, 다음세대 지원, 난민 사역을 하고 있는 L자매는 “자유가 없고 억압된 나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고 말했다.

캐나다 출신 K선교사는 “한국교회는 좌파와 우파가 너무나 갈라져 있다. 한국교회가 북한선교를 충분히 감당할 힘이 있지만, 북한선교만은 세계교회와 협력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전 세계 각국의 사람이 모여 북한선교를 감당하면, 세계교회도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7년까지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에서 젊은이 수백여 명을 1년 동안 보내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수전도단 M선교사는 “한반도 통일 실현에 중국의 협조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북한선교 전략에도 복음통일한국을 위해 중국, 특히 ‘북한의 문’인 ‘중국 동북3성’을 통한 한중교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선통협 통일교육위원장 임헌만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며 해외 NK사역에 큰 관심을 드러냈다.

한편, 포럼에 앞서 선통협(대표회장 김종국, 상임대표 조요셉)과 워싱턴북한선교회(대표회장 김영호, 사무총장 노규호)는 통일과 북한선교 사업을 위한 정보와 인적, 물적 교류, 지원과 협력을 위한 업무협력 약정(MOU) 체결식을 했다. 공동대표 유관재 목사는 “통일된 대한민국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계선교의 위대한 위업을 이룬다고 믿는다”며 “하나님의 큰 그림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상임대표 조요셉 목사는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북한선교를 위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알게 되니, 선교통일을 보는 우리의 시야가 훨씬 넓어지고 장벽을 넘어서는 것 같다”며 “특히 선통협은 통일이 목적이 아닌,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목적으로 나아가는 단체”라고 강조했다.

선통협은 앞으로 여러 북한선교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오는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 동안 속초 켄싱턴호텔에서 ‘그레이트 코리아 미션(Great Korea Mission)’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지희 기자

“성경적 경영과 비즈니스 세계 발전 위해 노력하겠다”

한국CBMC 제18대 중앙회장에 이대식 대표 선임

제53차 정기총회 열려…신임 수석부회장에 김영구 중앙부회장

한국기독실업인회(한국CBMC)가 제18대 중앙회장에 이대식 중앙부회장(법제관리위원장, ㈜삼신기계 대표)을 선임했다.

20일 한신교회(강용규 목사)에서 열린 한국CBMC 제53차 정기총회에서는 전국 280여 개 지회 334명의 대의원이 참석해 2019년 사역을 보고하고, 2020년 사업계획을 승인한 후 새 지도부를 선임했다. 이대식 신임 중앙회장은 27년간 여의도지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2011년부터 운영이사, 감사, 지회창립육성위원장 등 한국CBMC 중앙임원을 역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이대식 신임 중앙회장은 이날 “한국CBMC는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며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은 ‘전도와 양육’, ‘리더십 개발’, ‘일터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명이 쉽지 않지만, 중앙회 임원과 같이 토론하고 방법을 찾고 사례를 연구하여 지회, 연합회에 사례들을 전달해 많은 회원에게 도전하고 싶다”면서 “여러분도 힘을 실어주고 협력해 달라. 저도 대의원 여러분이 섬기는 지회, 연합회의 발전과 각 지회원의 성경적 경영과 비즈니스 세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국CBMC는 회무의 연속성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수석부회장 제도’를 신설해 신임 수석부회장으로 김영구 중앙회 부회장(새명지회, ㈜엘림BMS)을 선임했다. 또 신임 감사로 송기인 변호사(서울영동지회)를 선임했다.

한국CBMC는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사 62:10)라는 2020년 사역주제에 따라 비즈니스 미션의 지평을 확대하고, 킹덤컴퍼니의 기반을 확충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 작년 12월 개국한 한국CBMC 인터넷 방송 ‘채널CBMC’를 통해 유튜브 방송 ‘당신에게 꼭 필요한 일터묵상’ 사역도 지속해서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 방송에서는 강용규 목사, 곽수광 목사, 김석년 목사, 이건호 목사 등 4명의 강사가 매주 목요일 아침 일터의 크리스천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대식 신임 중앙회장(왼쪽)이 이승율 직전 중앙회장(오른쪽)에 한국CBMC 기를 넘겨받아 흔들고 있다. ⓒ이지희 기자

한국CBMC는 오는 8월 19~21일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약 3천여 명의 기독 실업인이 한 자리에 모여 일터사역의 비전을 다짐하고, 민족과 열방을 향해 기도하는 제47차 CBMC 한국대회를 개최한다.

이지희 기자



“복음주의자, 아시아에 가장 많아… 약2억2천만”

프랑스 세바스티안 파스 박사 연구 결과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북미가 아닌 아시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에 거주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2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프랑스의 세바스티안 파스 박사의 연구를 인용해 전 세계에 약 6억 6천만 명의 복음주의자가 있으며 25억 기독교인의 4분의 1을 약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파스 박사는 이어 아시아에 살고 있는 복음주의자들의 비율이 가장 높다고 밝히면서 그 숫자는 약 2억2천5백만 명이라고 했다. 중국은 6천6백만 명, 인도는 2천8백만 명, 인도네시아는 1천6백만 명, 필리핀은 1천3백만 명, 한국은 9백만 명이다.

아프리카에는 1억8천8백만 명의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거주해 두번째로 많다. 나이지리아 5천5백만, 케냐 2천만, 이디오피아 1천8백만, 콩고와 남아프리카는 1천5백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 1억 2천3백만 명의 복음주의자들이 남미, 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과테말라에 살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북아메리카에는 1억1천8백만 명의 복음주의자가 있으며 그 중 9천9백만이 미국에 살고 있다. 멕시코에는 1천만 명이 살고 캐나다에는 1백만 명이 있다. 이밖에 유럽에는 2천3백만 명이 거주하며 오세아니아에는 7백만 명의 복음주의자들이 있다고 이 연구는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세계에서 복음주의 기독교의 발전을 주제로 분석된 25개 문서에 근거한 근사치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CP는 파스 박사의 연구 결과가 “20세기 초반 기독교인이 거의 없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기독교는 엄청나게 성장했다”고 발표한 퓨리서치 센터의 초기 보고서를 뒷받침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일부 연구자들에 따르면 오는 2035년까지 중국이 대다수의 기독교 국가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국가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편,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도 백인이 아닌 복음주의자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CP는 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복음주의 교파로 확인된 성인 기독교인의 11%는 히스패닉, 6%는 흑인, 2%는 아시아인, 5%는 다른 인종 또는 혼혈 인종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경향에 근거해, 신학자인 N.T. 라이트(Wright) 박사는 CP와의 인터뷰에서 “서양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성장과 확장에 있어 보다 세계적인 관점을 채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서양인이 아니며 모국어로 영어를 구사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서 모든 종류의 방식으로 번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미경 기자

디즈니, 마법 긍정적으로 묘사한 시리즈 방영 논란

방송 취소 청원에 1만 6천여명 서명



디즈니가 제작한 애니메이션 ‘아울 하우스’ ©디즈니 채널 유튜브 캡처

보수적인 기독교 감시 단체인 ‘원 밀리언 맘스’가 디즈니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판타지 코믹 만화 시리즈인 ‘The Owl House’(아울 하우스)가 마법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2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1월 시작한 아울 하우스 시리즈의 방영을 취소하라는 청원서에 1만 6천명이 넘이 넘게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시리즈는 루즈라는 십대 소녀가 우연히 악마의 영역으로 향하는 포털을 발견하고 악의 세력과 싸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루즈는 결국 에다라는 마녀와 친구가 되고 킹이라는 이름의 작은 전사가 된다. 루즈에게는 마법의 힘이 없지만, 마녀가 되는 꿈을 추구하면서 에다의 견습생이 된다.

원 밀리언 맘스는 아울 하우스 시리즈에 대해 “어린이를 악마의 세계로 안내하는 한편, 문화를 반영하는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마음을 침범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미리보기와 광고에도 디즈니 채널을 시청하는 가족이 악의적인 콘텐츠를 완전히 피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며 “첫 번째 에피소드를 보면 대부분의 기독교인 가정이 이 시리즈가 귀엽고 재미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에 충분하다”며 이 프로그램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 시리즈는 또한 ‘판타지 폭력’을 포함하고 있지만 7세 이상이 시청하기에 적합하다고 평가받았다.

크리스천 방송 네트워크의 기고가인 데보라 번팅은 “아울 하우스는 신데렐라를 넘어서는 재미도 없다”면서 “마법을 악과 싸우는 긍정적인 도구로 묘사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리즈의 프로듀서인 다나 테라스는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이 시리즈의 이야기 중 70%는 구전 설화에서 가져왔다. 이 시리즈의 만드는 작가의 방에는 마법, 마녀, 주문에 관한 책들로 가득차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 밀리언 맘스는 이사야 8장 19-22절과 신명기 18장 10-11절을 인용하면서 “이 구절에는 마술사나 신접한 자와 협의하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경고하며 모든 형태의 마법을 피하라고 경고한다”고 강조했다고 CP는 전했다.

이미경 기자

수직적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9가지 성구

영국 크리스천투데이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해드리도록 돕는 9가지 성구’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다음은 칼럼에서 소개한 9가지 성구이다.

1. 사무엘상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2. 시편 146편 3~5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

3. 이사야서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4. 마태복음 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5.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6. 요한복음 12장 42~43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7. 로마서 12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8.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9.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강혜진 기자

“자녀, 부모 마음대로 처분하는 소유물 아냐”

‘자녀 살해 후 자살’ 방지 세이브더칠드런 성명

아이와 함께 자살하는 안타까운 부모들이 발생하자 세이브더칠드런(이사장 오준)이 21일 ‘자녀 살해 후 자살’ 방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13일 양천구에서 일가족 네 명이 숨진 채 발견 되었는데 경찰은 남성이 자신의 두 자녀와 아내를 살해한 후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난 해에는 10월에만 2주 사이에 4건의 일가족 살해·자살 사건이 발생해 8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정부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정이 본연의 책임을 다하도록 감독하고 지원할 책무를 당사국에 부여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다. 협약 제6조는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며 “자녀는 부모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며, 아동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독립적 인격이므로 부모가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자녀를 죽일 권리는 없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두고 부모가 ‘오죽했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 지를 떠올리며 온정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자살을 계획한 부모가 남겨질 자녀를 책임질 수 없어 살해한다는 생각은 국가의 사회 안전망에 대한 불신과도 무관하지 않다. 달리 말하면, 이는 아동의 안녕과 성장의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는 점을 부모들이 체감하지도 신뢰하지도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모의 잘못된 판단과 사회 안전망의 미비 사이에서 아이의 삶과 미래를 빼앗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2019년 한 해 최소 25명의 아이들이 ‘자녀 살해 후 자살’로 부모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며 “이 사망자 수는 2018년 아동학대 사망자 수인 28명에 버금간다”고 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규모가 비슷하지만 문제를 평가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부의 대응은 다르다”며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자녀 살해 후 자살’에 대해서는 예방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성명서에서 ‘자녀 살해 후 자살’로 생명권을 박탈당하는 아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다음 사항들을 정부에 요구했다.

1. ‘자녀 살해 후 자살’에 대한 통계를 구축하고 공표하라.

‘자녀 살해 후 자살’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나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아동학대주요통계에 ‘자녀 살해 후 자살’을 지표화 하고 공표하라.

2. 현행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위기가정을 촘촘하게 찾아내고 지원하라.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부 불화, 생활고 및 채무 등 경제적 문제, 부모의 정신과적 문제 등이 지목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연계를 통한 데이터로 위기 가정을 촘촘하게 찾아내어 ‘자녀 살해 후 자살’의 주요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실효성 있는 아동 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3. 자녀 살해를 온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다하라.

자녀의 생명권을 부모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의 기저에는 주요한 돌봄의 역할을 가족에게 떠넘기고 위기가정 지원과 아동보호에 소극적이었던 국가의 책임 방기가 있다. 자녀 살해는 가중처벌을 받는 존속살해(형법 제250조 제2항)와 대조적으로 일반 살인으로 분류되며, 영아 살해는 최고 형량이 일반 살인보다도 낮다. 정부는 자녀 살해를 온정적으로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비롯하여 자녀 살해라는 극단적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이행하라.

4. 지역사회에 자녀 살해 후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서비스를 마련하라.

위기에 처한 가정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 문제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하는 분위기가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기 가정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 등 사회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위기가정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안전망 자체가 미비하므로 이를 위한 공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예산을 확대하라. 또한, 가정의 위기가 감지되었을 때 아동 살해 의도가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상담 등 실질적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위험이 발견되었을 때 국가의 공적 체계는 아동 안전 확보 등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작동하여야 할 것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한다”며 성명서를 마쳤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14년 송파구 세 모녀 사건 이후 언론의 ‘동반자살’ 표현을 분석하여, “부모와 자녀의 ‘동반자살’은 없습니다. 자녀 살해 후 부모 자살만 있을 뿐입니다”라는 의견서를 25개 언론사에 보낸 바 있다. ‘동반자살’ 이라는 표현의 일상적 사용은 아동을 부모가 마음먹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소유물로 인식하게 하여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전민수 기자

“‘성평등’ 용어 그대로 둔 조례 개정, 단호히 거부”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성명 발표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임시회를 통해 경기도성평등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22일 성명을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소속 도의원들의 토론도 생략한 채 졸속으로 몇 분 만에 순식간에 통과시켜 버렸다. 더욱이 이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무엇이 두려워 이렇게 숨기며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가.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것이다. 무언가 떳떳하지 못한 게 도민들에게 알려질까 봐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도의회 홈페이지 영상회의록에 따르면 여가위는 ‘사용자’ 용어만 삭제하는 성평등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인 동성애, 제3의 성, 트랜스젠더리즘을 포함하는 ‘성평등’ 용어에 대해서는 단 한 글자 수정도 하지 않았다”며 “성평등위원회 활동을 도민 혈세로 지원하는 조항도 이번 개정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가위 위원장인 박옥분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대로 통과시킨다고 설명했다. ‘성평등’이 당 강령인 민주당은 역시 ‘성평등’ 용어에 대해서 한 치의 진전도 없이 도민의 재개정 요청을 묵살했다”며 “근본적 문제인 ‘성평등’ 용어는 하나도 고치지 않았다. 눈 가리고 아웅 하듯 이렇게 졸속으로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총선을 의식한 표 관리다. 작년 12월 자체 타협안을 의총에서 부결시켰다 이제 다시 재상정하고 통과시킨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민연합과 다수의 전문가들은 작년 7월부터 계속 ‘사용자’ 용어를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이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도의회 측에 문제제기를 해왔다. 심지어 도의회 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도 조례 통과 전 이 문제에 대한 검토의견을 도의회에 전달했지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성평등’ 용어 사용이 이보다 더 큰 문제다. 헌법이 규정한 양성평등에 반하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도외시하면서 표 이득만 챙기겠다는 전형적인 정치적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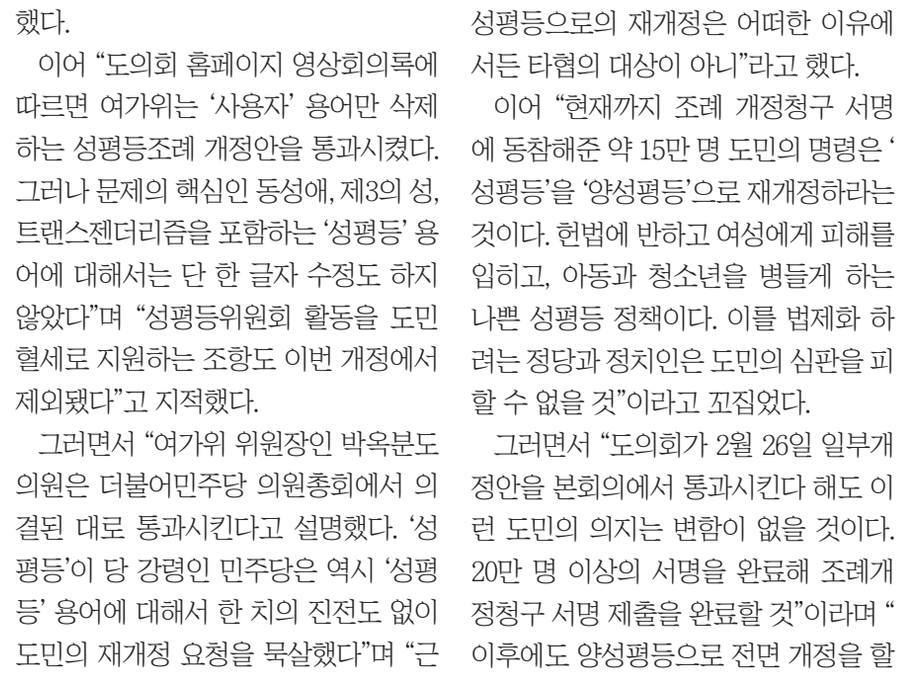
도민연합은 “어느 단체와 합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일부개정안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 현재 진행 중인 조례개정청구는 조례명을 포함하여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전면 개정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며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개정하지 않는 일부 개정이든, 타협이든 불문하고 단호히 거부한다. 양성평등으로의 재개정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현재까지 조례 개정청구 서명에 동참해준 약 15만 명 도민의 명령은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재개정하라는 것이다. 헌법에 반하고 여성에게 피해를 입히고,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하는 나쁜 성평등 정책이다. 이를 법제화 하려는 정당과 정치인은 도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2월 26일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 해도 이런 도민의 의지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20만 명 이상의 서명을 완료해 조례개정청구 서명 제출을 완료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양성평등으로 전면 개정을 할 때까지 건강한 가정과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모든 시민단체, 종교단체 및 도민들과 함께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끝으로 “자연의 섭리를 파괴하고, 성윤리를 무너뜨리는 악법을 제정하는 정당과 정치인은 도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형구 기자



과거 도민들이 ‘성평등’ 단어가 포함된 인권 조례에 대한 반대 집회를 갖던 모습.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광화문 집회 강행’ 어떻게 봐야 하나?

“왜 실내 아닌 실외부터?” VS “국민적 불안 고려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부터 광화문 광장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매주 주말 이곳에서의 집회를 이끌어 온 전광훈 목사(한기총 대표회장)가 집회 강행 의지를 밝히자 이에 대한 견해들이 엇갈리고 있다.

박 시장이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 금지를 전격 결정한 이유는, 최근 며칠 새 급속도로 퍼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이다.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박 시장의 말이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때문에 국민들도 이를 어느정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일단 법적 근거는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관할 지역 내 집회나 제례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제49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어기게 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박 시장의 발표 직후 그 내용을 두고 전 목사와 대담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실외보다 실내 밀집된 공간에서의 감염 우려가 훨씬 더 크다는 이유에서, 박 시장의 조취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실외 집회를 실내의 그것보다 먼저 금지 조치한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것이 광화문 집회에 대한 탄압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다.

전 목사가 박 시장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집회 강행 의사를 밝힌 데는 이 회장의 이 같은 주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시장 조치의 의도성이나 합리성 여부를 떠나, 국가적 재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 목사 측이 이를 고려한 결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만만찮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실외 전염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국민적 두려움과 불안을 감안해 이를 불식시키는 선제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동안 광화문 집회에 우호적인 이들 중에서도 “전 목사의 우국충정은 이해하나, 현실적·전략적 측면에서 집회 강행 여부를 다시금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한다”며 “만에 하나 집회 참석자들 중에서 감염자가 나온다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진영 기자



22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 ©뉴시스

박원순 시장 ‘금지’ 결정 후 첫 광화문 집회

전광훈 목사 “피를 바친 나라, 어찌 쉽게 포기하나” 심하보 목사 “우리가 다 규례 어기고 나온 에스더”

전광훈 목사(한기총 대표회장)가 이끄는 광화문 집회가 22일에도 진행됐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 광장 집회 금지를 결정했지만, 그대로 강행됐다.

전 목사는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바이러스 사건도, 그 출처가 중국이라면 전 세계 132개 나라가 중국인들의 출입을 금지하는데 대한민국도 당연히 중국 관광객을 당분간 막아야 할 것이 아닌가”라며 “같은 공산주의인 러시아까지도 금지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평화롭게 집회하는 걸 방해하려고 바이러스 핑계를 삼아 집회를 금지한다고 여러분과 저를 막을 수 있겠나. 설령 이 자리에서 감염이 되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29일 열릴 ‘3.1절 국민대회’에 많은 이들이 나와 줄 것을 호소했다.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도 이날 단에 올랐다. 심 목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누가 우리를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끊어놓을 수 있겠나”라며 “정부가? 대통령이? 서울시장이? 우한폐렴이? 날씨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한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이 애국자”라고 했다.

이어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내가 아니면 누군가 해주겠지’(라고 생각한다.) 맞다. 해준다”며 “그런데 에스더에게 ‘네가 잠잠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집은 반드시 멸망하리라’는 모르드개의 말(에스더 4:14)처럼, 우리 때문에 좋은 일이 미래에 있는 것이 맞다. 그러나 함께 하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그 영광이 계속 누려질 것 같은가?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바로 여러분이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간 에스더처럼, 사실 서울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집회를 하지 말라’고 규례를 내렸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다 그 규례를 어기고 이 이승만 광장에 나온 에스더”라고 했다.

그는 또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모으면 된다. 남이 해주지 않는다. 여러분이 해야 한다. 여러분이 에스더”라며 “매주 이승만 광장을 메운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지키는데 앞장선 애국자요 하늘의 큰 상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런 애국자들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뭐하고 있는지 가슴이 아프다”라며 “제가 이렇게 나오는 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교회도 지킬 수 있다. 교회를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아야 내 후손도 구원받게 할 수 있다. 이 일에 함께 하자”고 했다.

김진영 기자

“광화문 집회 금지? 지하철 운행중단은 왜 안 하나”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주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 광장 등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이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정치·종교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이날 박 시장의 발표가 전해진 직후 유튜브 채널 ‘너알아TV’를 통해 방송된 전광훈 목사(한기총 대표회장)와의 대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 이유는 “(감염 위험성은 실외보다) 실내의 밀집된 공간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 때문이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왼쪽)이, 박원순 시장의 광화문 광장 집회 금지 조치에 대해 전광훈 목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유튜브 ‘너알아TV’ 영상 캡쳐

그는 “정부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도 쓸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을 정도”라며 “(현 상황이 정말 위험하다면)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 예배나 실내에서 장시간 (영화를) 보는 영화관부터 금지해야 한다. 그런데 (실외인) 광화문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 회장은 “박 시장의 광화문 집회 금지 결정이 정치 탄압, 예배 탄압이 아니라면 실내 집회부터 금지시키라”면서 “정부의 행정 조치는 최소한의 합리성과 형평성,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중국에 대해 133개국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그 같은 조치는 취하지 않고) 모든 탓을 교회나 다른 곳에 돌리려 하면 그것은 공작 정치”라며 박 시장을 향해 “(현 상황이) 위험한가? 그럼 내일 전철부터 운행 중단을 하라. 위험하지 않은가? 그럼 왜 (실내보다 덜 위험하다는) 야외 집회를 금지시키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종교를 탄압하고 싶어도 최소한의 상식은 가지고 행정을 하길 바란다.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된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의 이 같은 견해를 들은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라며 “누가 뭐래도 내일(22일) 집회는 정상적으로 한다. 실외에서는 (아직) 감염되지 않았다. 내일 더 많이 나오라”고 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긴급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21일부터 서울 소재 신천지 교회를 폐쇄 조치하고, 광화문 광장 등에서 집회를 갖는 것도 당분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청교도들이 미국 사회에 미친 영향

박종승 목사
예심교회 동역목사,
WIW Ministry 사역자



청교도 이민 400주년 기념

1) 윌리엄 브래드포드와 플리머스 식민지 사람들(분리주의자들)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거친 바다를 건너서 신대륙에 도착한 승객과 선원들 중에서 까다로운 청교도들 41명은 배에서 내리기 전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것을 메이플라워 서약(Mayflower Compact)라고 부른다. 그들은 본국이나 영국의 국왕과 상관없이 a) 자체적인 민간 정치체제를 만들 것, b) 식민지 사정에 잘 맞으며 식민지를 위한 법률과 조례, 법, 헌법이나 직책을 만들고 준수할 것을 서약했다. 그리고 이 일을 주도적으로 맡았던 인물로는 존 카버와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있다. 우리는 윌리엄 브래드포드와 초기 식민지 개척 당시를 살펴보면서, 청교도들이 미국 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추수 감사절의 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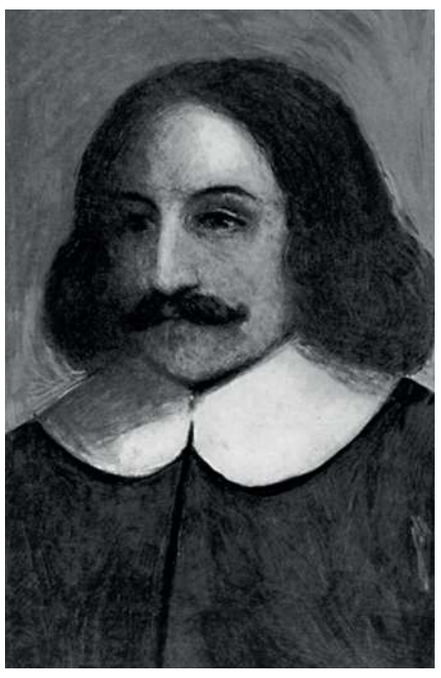
배에서 내린 청교도들은 존 카버를 초대 정착촌장으로 세우고, 7채의 집을 짓고 신대륙에 정착하고자 시도하였다. 첫 해 겨울에 50명이 넘는 사람이 영양실조로 죽고, 봄이 왔다. 영국에서 가져온 씨앗을 파종하였으나 실패하고, 가을이 닥쳤다. 이때 아브나키 인디언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주었고, 스쿠안토라는 이름의 인디언이 통역을 해주었다.

그 봄에 촌장인 존 카버가 죽자,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39세의 나이에 촌장이 되었다. 가족들이 죽었고, 가을이 되어도 궁핍하기는 마찬가지였으나, 사냥과 채집으로 음식을 장만하고, 인디언들을 초대하여 축제를 벌였다.

추장 마사소잇과 약 90명의 인디언들이 찾아와서 3일 동안 축제를 벌였다. 인디언들은 사슴을 여러 마리 사냥해 와서 모두가 즐기며,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것이 추수 감사절의 유래이다.

*공복으로서의 봉사 정신

윌리엄 브래드포드는 이듬해(1622년)에 다시 플리머스의 주지사로 선출되었고, 이후로 31번 주지사로 선출되어 33년 동안 공직을 수행했다. 왜냐하면 브래드포드야말로 참으로 식민지 주민들의 편에서 주민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지켜주며, 외적으로부터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해



윌리엄 브래드포드(William Bradford)

줄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이었다. 브래드포드가 식민지 주민들에게 누를 끼치기 싫어하여 급료를 받지 않고 일하자, 이를 알게 된 주민들이 강제적으로 월급을 책정하여 지급하기도 하였다. 아직까지도 미국인들의 피에 흐르는 봉사정신은 어느 날 그냥 형성된 것이 아니다.

또한 브래드포드는 결코 자기에게 주어진 공직이나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1630년에 영국 추밀원이 뉴잉글랜드의 와익(Warwick) 지역 땅의 불하권을 브래드포드 개인에게 주었지만, 브래드포드는 혼자의 이익을 삼지 않고, 이를 이민자들과 함께 분배하였다. 브래드포드의 재산은 죽을 때까지 집 한 채와 작은 농장이 전부였다. 이러한 청렴결백은 미국의 정치가들의 모범이 되었고, 후대의 미국 정치 지도자들의 자질을 결정하는 잣대가 되었다.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제도

브래드포드와 그 외의 플리머스 이민자들은 1630년대 중반부터 〈일반적인 원칙〉(General Fundamentals)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뉴 플리머스의 동료들인 우리는 모든 특권을 부여받은 영국 정부의 자유민으로 법령을 선포하고 법을 제정하고 설립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다. 어떤 법령이나 부칙, 법 또는 규칙도 현재나 미래에 우리를 향해 강제로 만들어질 수 없고, 자유민이나 동료들의 모임 또는 그들의 법적인 대표들의 동의를 받아 만들어지거나 부과될 것이다."

이러한 정신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며 민주주의와 법치를 존중하는 미국인들의 가치관이 되었다. 이것은 미국 헌법의 기초로 연결되었다.

2)존 윈스럽과 뉴잉글랜드(비분리주의자들)

1630년 3월 윈스럽과 일행은 모두 17척의 배로 영국의 사우스앰턴에 모였다. 존 코튼 목사의 환송 설교가 있었고, 모두 신대륙을 향하여 떠났다. 윈스럽은 항해 중에 행한 설교에서 모든 이가 우러러 보는 "언덕 위의 도시"를 건설하자고 역설하였다. 이민의 목적은 첫째로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 둘째로 성경 말씀에 인도되는 거룩한 정부를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교하였다.

*신정 정치사상

존 윈스럽은 신대륙에 도착한 직후에 자유민들을 소집하여, 뉴잉글랜드의 정부에 관하여 상의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성경에 기초한 법을 만들고 성도들이 다스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참정권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당시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지주나 남자에게 참정권을 주었으나, 식민지에서는 교회 회원에게만 참정권을 주기로 의결하였다. 그리고 교회 회원이란, 성경적으로 바른 신앙을 고백하며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회심 체험을 한 사람을 교회의 회원으로 인정했다. 이런 교회 회원에게만 선거권을 주었다. 이러한 정치 제도는 도전을 받기도 하였으나, 미국의 헌법과 건국의 기본 정신이 되었다. 또한 이들은 뉴잉글랜드를 중심으로 교회의 중심을 수직적인 계급 보다는 교회의 회중을 중심으로 하는 회중 교회 제도를 확립했다.

이들이 미국 사회에 끼친 가장 지대한 공헌은, 한 마디로 "현대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가장 빛나는 국가를 세웠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이들의 결정적인 공헌은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확립한 것이다. 재산이나 계급보다도 법이 우위에 서서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다.

3)청교도들은 교육을 중시하여 이민 초기부터 학교를 만들어 교육에 힘썼다.

이러한 교육기관들은 대개가 신학교로 출발하였다. 우리가 아이비 리그라고 부르는 동부의 명문 대학들이 그것들이다. 하바드(1638), 예일(1701), 프린스톤(1746) 그리고 다트머스(1754) 등이 청교도들이 세운 대학들이다.

코로나보다 더 염려되는 것

이선규 목사
대림다문화선교센터
대표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지나는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고 계십니까? 백화점이 휴점하고 있습니다. 호텔이나 학교나 유치원이나 시장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난리입니다. 아니 큰 공장들이 쉬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차선하나 지키지 않을 때가 사고가 나서 죽습니다. 비자 손가락 질 하나가 베드로를 통곡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온 인류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가져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불바다를 가져왔습니다. 노아시대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의 사랑이 물심판을 불러왔습니다.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했습니다.

중국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 합니다. 신호 하나 안지키면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내 일생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모르면 아니 됩니다.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지나간 곳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내 모습을 보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나를 돌이키고 내 영혼을 돌이키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오늘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과 버림의 영성으로



연요한 목사의
아침을 여는 기도

사랑의 하나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의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우리에게 호흡할 공기를 주시고 존재할 시간과 공간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시몬은 지금까지 어부로 살아왔습니다. 가족도 있고 고기 잡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부들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먼저 부르심이고 바로 요청되는 일이 버림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막1:17)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평생에 걸쳐 삶을 소명의 차원에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소명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서서 자신의 모든 삶을 판단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만을 가지고 누구의 판단도 받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다. 가장 자유롭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헌신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버림을 삶의 태도로 삼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버림이 아니라 오히려 집착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살기에 이런 버림의 영성은 공허하게 보입니다. 어떤 것을 버림으로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직업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에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옵소서.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버려 그 밭을 샀습니다. 더 나아가 이미 버려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살게 하옵소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들도 우리에게 계속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에 목숨을 거는 태도로 살고 있습니다. 생존에 불안해서입니다. 저의 인생을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도 강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생명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게 하옵소서. 교만을 버리고 전혀 새로운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소명과 버림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놀라운 사랑을 받은 이 몸 주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증험으로 확인되는 하나님의 말씀



장효재 목사
서울성은교회

본문: 신명기 18:15-22

15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16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17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18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19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20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21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22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하나님의 사랑, 능력, 지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신분인 목사들이 선포한 말씀을 기대 걸고 믿어서 실천하고 기대해 봤지만 아무 증험도 없이 끝이 나고 헛수고하는 결과만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예언기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생리는 자기 믿음의 성의나 노력은 보이지 않고 누군가가 기도해서 하나님과 잘 통한다는 말에 솔깃해서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 그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영들의 사주를 받아 그것에 속하게 되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은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잘못된 영들의 지시를 통하여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속아 영육간에 잘못되는 경우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모세가 자신의 한차례 허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20:10-12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서 행세하는 식으로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의식하면서 가나안으로 함께 입성하지 못하는 자기 대신 선지자 하나를 세워 주실 것이니 하나님의 종인 그의 말을 들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다른 누가 그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으며,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고 거짓된 선포를 한다면 그것을 어찌 분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걱정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는 능력을 보장 받을 수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짐작으로 만들어내어 선포되는 말씀을 믿고 복종하여 실천하더라도 그저 헛수고로 끝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8장을 보면 두 임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7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사라는 부왕의 대를 이어 유다의 왕으로 신앙을 바탕으로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는 아합 왕의 딸과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키고 나라끼리 세금 없이 교역을 하는 상황이었기에 각 나라의 문화가 교류되면서 신앙에 혼란을 가져오는 폐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군사동맹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하나님이었고, 북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신임 얻어 축복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허락하신 조건으로 하나님 더 잘 섬기는 목적으로 활용하면 더 나은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인들과 어울려 잘못 없애버리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채찍을 맞을 수 있음을 본문을 통해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아합 왕을 찾아갔습니다. 아합 왕이 엄청난 대접을 하면서 이스라엘 자체의 국력은 약하지만 유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강해져 있으니 그 부강함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아람을 쳐부수고 길르앗 라못을 다시 빼았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군사동맹을 맺은 처지이기 때문에 아합의 제안에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사상과 길르앗 라못에 가서 그 땅을 빼앗으려는 아합의 사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 보소서" 합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존재를 귀찮게 생각했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획은 우리가 세울지언정 그 일들의 승패는 하나님 말씀에 달렸음을 알고있는 신앙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아합 주변에서 서식하는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고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합니다.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말하길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400명의 선지자가 한결같은 말을 했지만 믿기지 않아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했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이믈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하며 그를 불러 오길 원치 않는 듯 말합니다.

여호사밧은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며, 내게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아야하니 그 사람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래서 할수없이 내시를 시켜 데려오면서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처럼 길하게 하소서"하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의 종입니다.

400명 선지자 중 수석인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고 말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고 말하며 아합 왕을 즐겁게 하려합니다.

이때 미가야가 왕들 앞에 왔습니다.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하고 묻자 처음에는 오면서 교육받은대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저희가 왕의 손에 붙인바 되리이다"고 답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말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하겠느냐"고 한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아합 왕의 생각 속에는 400명의 선지자가 한 말이 신빙성 없는 말이라는 것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선포하길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없어진다는 것은 아합 왕이 죽는다는 것이고, 왕이 죽는다해도 백성들이 각각 평안히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아닌 아합 왕이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미가야의 예언이 그동안 했던 것처럼 흉한 것만 예언한다고 투정을 했습니다.

미가야는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아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잠언 16:4-5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거짓 예언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치며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고 소리칩니다. 이것은 시드기야가 아합 왕의 총애를 입고 있는 입장에서 왕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야가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 날에 보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미가야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자신이 길르앗 라못을 쳐부수고 승리해서 돌아올 때까지 고문하라고 명을 합니다. 그때 미가야가 왕이 살아 돌아올 것이라면 예언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하여 더욱 미움을 받아 옥에 갇혀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군과 유다 군이 연합하여 길르앗 라못으로 출전을 합니다. 아합은 미가야의 예언이 맘에 걸려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하고는 군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람 왕이 보니 왕이 앞장을 섰기에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고 합니다.

아람 군인들이 "이는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싸우려 할 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자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우연히도 쏜 화살이 이스라엘 왕 아합의 갑옷 솔기를 맞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날의 전쟁이 맹렬하여 빠져나와 치료받지 못하고 병거에서 스스로 부지하며 저녁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귀에 들리는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거짓으로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양 속임수로 들려주는 말인지를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온전히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책임지고 이루신다는 믿어지는 믿음을 가질 때 여호사밧 왕처럼 전투장에서 왕복을 입고 앞장 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안전을 책임져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21절 이하를 보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이고 선포되는 말씀이 성취되어감을 확인하는 믿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이 열립니다



소강석 목사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당신의 소원이 무너졌을 때 어떤 마음이었나요? 그래도 더 좋은 길이 열리지 않던가요"

작년에 제가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국가조찬기도회 개막 기도회인 '런천 프레이어'에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미국 상·하의원들과 세계 각국의 대사들 앞에서 메시지를 전한 것은 대단한 일이었죠. 강단에 서기전에는 엄청나게 긴장을 했지만 그래도 제 영어를 알아듣고 박수를 쳐 주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한 김에 다음 해에는 미국 국가조찬기도회 메인 기도회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메인 기도회에는 상·하의원은 물론이고 세계의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메시지를 전하면 한미관계와 남북평화에 대해서 상당히 공헌을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목사가 미국 교회 목사들뿐만 아니라 정재계 지도자,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가 참석한 자리에서 스피치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대신해서 우리 교회 영어 목사인 브라이언 조 목사님이 많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가조찬기도회 측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싸인을 주었습니다.

미국 국가조찬기도회 메인 기도회에서 메시지를 증거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고 뛰었습니다. 강사를 선정하는 마지막 단계에서도 -물론 저 혼자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러나 최종 3배수까지 올라갔는데 아쉽게도 탈락되었습니다. 아직 한국 목사가 하기는 이르다는 이유였습니다. 은근하게 마음에 섭섭함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가조찬기도회 스텝 중의 한 명이 직접 한국에까지 와서 저에게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들이 건네는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소강석 목사가 지난해 미국 국가조찬기도회 개막 기도회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

"목사님이 이번에 국가조찬기도회 강사는 안 되었지만 목사님은 미국의 영적 지도를 바꾼 분입니다. 목사님은 브라이언 조를 통해서 백악관의 신앙데스크와 미국 국무부 담당자들에게 전략적인 설명과 설득을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로 하여금 존 에프 케네디가 금지한 기도를 자유롭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목사님은 대단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조찬기도회에서도 지난 60년 동안 공립학교에서 종교탄압을 받아왔던 기독교가 자유롭게 기도하고 해방이 되게 하겠다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저는 강사로 서지 못했지만 이러한 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다 더 큰 선물은 저희 기도의 어머니 정금성 권사님의 건강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보면 다 되리라고 생각했던 꿈과 소원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심정은 너무 실망스러울 수 있지요. 그러나 그 꿈은 무너져도 더 좋은 길이 열리고 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루지 못한 소원과 꿈이 계속해서 더 반짝이고 있는 것이죠.

김명혁 원로목사 설교

교회란 어떤 곳인가?



본문: 대하 7:12-16, 마 16:18, 엡 1:23
설교: 강변교회 김명혁 원로목사

제가 2008년 1월 13일 강변교회에서 은퇴한 다음 지난 12년 동안 매 주일 전국의 작은 교회들을 주로 방문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좋은 소식교회는 제가 강변교회에서 은퇴한 다음 세 번째 주일인 2008년 2월 3일 주일 처음으로 와서 설교를 한 다음 지난 2019년 10월 6일 주일까지 18번 와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 제목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 2월3일 처음으로 와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2010년 9월 12일 두 번째로 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머니 교회의 모습"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2011년 3월 20일 세 번째로 와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2012년 5월 6일 네 번째로 와서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2012년 10월 14일 다섯 번째로 와서 "자원하는 신앙생활"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2013년 10월 13일 여섯 번째로 와서 "예수님을 닮아 가는 삶"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2014년 2월 16일 일곱 번째로 와서 "성령의 감화와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2015년 1월 18일 여덟번째로 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솔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2015년 7월 5일 아홉 번째로 와서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2016년 1월 3일 열 번째로 와서 "새해와 여생의 소원과 기도"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2016년 7월 10일 열한 번째로 와서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2017년 1월 22일 열두 번째로 와서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소망을 지니고"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2017년 7월 23일 열세 번째로 와서 "나의 삶과 사역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2017년 12월 31일 열네 번째로 와서 "한 해를 돌아보고 새 해를 맞으며"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2018년 6월 10일 열다섯 번째로 와서 "가장 귀중한 삶은 섬김의 삶"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2018년 9월 9일 열여섯 번째로 와서 "오직 예수"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2019년 2월 10일 열일곱 번째로 와서 "화해와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며"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2019년 10월 6일 열여덟 번째로 와서 "응답 받는 올바른 기도에 전념하는 삶"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2020년 2월 23일 주일 여기 열아홉 번째로 와서 좋은 소식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허기정 목사님과 이영란 사모님과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무슨 제목의 설교를 하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허기정 목사님이 오늘 "교회란 어떤 곳인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 달라고 해서 오늘 "교회란 어떤 곳인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들 중에서 교회보다 귀중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존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들 중에서 교회보다 귀중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존재입니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성부 하나님께서 눈과 마음과 귀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과 마음과 귀를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전에 기울이시고 그 곳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찌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대하 7:12-16). 너무너무 귀중하고 축복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과 마음과 귀를 기울이시고 그 곳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교회보다 귀중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존재는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성자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세우신 예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 16:18).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행 20:28). 교회는 성자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사시고 세우시고 지으신 예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찬 246). 저는 고등학생인가 대학생 때 김치선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대구 주암산 부흥회에 참석해서 찬송가 246장을 부르면서 울고 또 운 일이었습니다. 주암산 부흥회 어느 시간에 찬송가 246장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절 가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저는 1절을 부르다가 더 이상 찬송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라고 찬송을 부를 때 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셨을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셨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해서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또한 "늘 사랑합니다" 라는 가사에 "나는 늘 사랑하지 못하는데" "나는 늘 사랑하지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며 충격을 받으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아마 20여분 이상 계속해서 울었을 것입니다. 옆에 있던 어느 어른이 "학생 무슨 슬픈 일이 있어?" 라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귀중한 교회를 늘 사랑하여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행 20:28) 라는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자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세우신 예수님의 집인데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와 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엡 1:22,23).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엡 5:23).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골 1:18). 교회는 성자 예수님의 머리와 몸이라고 사도 바울이 거듭해서 지적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교회보다 귀중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곳은 이 세상에 아무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바로 성자 예수님의 집이고 머리와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골 1:24).

셋째로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므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행 2:1-4).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임재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 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행 2:33). 결국 예루살렘교회의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되었고 모두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행 2:38). 특히 집사로 세움을 받은 일곱 사람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행 6:3).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바나바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행 11:24).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이 바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성령님의 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19).

"교회가 왜 귀중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존재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요 성자 예수께서 피흘려 세우신 예수의 전이기에…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령의 전이기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들 중에서 교회보다 귀중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존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성부 하나님께서 눈과 마음과 귀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또한 성자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세우신 예수님의 집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머리와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들 중에서 교회보다 귀중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존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주님 사랑"과 "교회 사랑"보다 귀중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것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경고를 했는데 우리들이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자기보다 돈보다 쾌락보다 더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귀중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일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교회란 우리들의 모든 것을 쏟아바치며 사랑하여야 할 희생적인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은 주님과 교회를 자기들보다 자기들의 집보다 자기들의 일터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은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면서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행 2:46).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은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전혀 힘썼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전혀 힘쓰니라"(행 2:42).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은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서로 교제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기를 전혀 힘쓰니라"(행 2:42).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은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행 2:42).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은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에 다함께 나와서 사랑과 구제와 봉사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고"(행 2:44,45).

주님과 교회를 자기보다 자기 집보다 자기 직장보다 더 사랑하는 일보다 귀중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일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날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주일 하루라도 종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와 말씀 듣는 것과 교제와 섬김의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또는 일터와 놀이터로 가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녁 예배를 아주 없애 버린 교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몽둥이로 맞거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분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찌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찌며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 칠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찌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 칠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출 31:14-17).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 칠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출 35:2,3).

"안식일 성수"의 명령은 구약시대에 그친 것이 아니고 신약시대에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구약의 안식일 제도는 신약의 주일을 준비하는 예표였습니다. 구약의 안식일 제도는 구약 시대에 잠깐 동안 주어진 제도가 아니라 "대대로" 지킬 "영원한" 언약이고 표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출 31:13,16,17).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완성자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마 12:8). 안식 후 첫날 새벽 즉 첫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위로와 기쁨과 함께 부활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즉 첫 주일 저녁에 부활의 주님께서 사랑하는 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위로와 기쁨과 사명과 성령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다음 주일 저녁에도 부활의 주님께서 사랑하는 열 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위로와 기쁨과 사명과 성령을 부여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도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날도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함께 모인 성도들과 종일 밤중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행 20:7). 부활의 예수님께서 밧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날도 "주의 날" 곧 주일이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계 1:10,11).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더 사랑하는 일보다 그리고 주일을 성수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 드리는 일보다 귀중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일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주일을 성수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정성껏 드리는 예배가 앞으로 영원한 천국의 예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히 4:9-11). 다시 말씀 드리고 다시 말씀 드리지만 주님과 교회를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더 사랑하는 "주님 사랑"과 "교회 사랑"보다 귀중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일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주일을 성수하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와 몸이 되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 드리는 일보다 귀중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일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족하고 또 부족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부모님과 신앙의 선배님들로부터 "주님 사랑"과 "교회 사랑"과 "주일 성수"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저의 몸에 지니게 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북한의 신의주 제이교회와 평양 서문밖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주님 사랑"과 "교회 사랑"과 "주일 성수"의 신앙을 몸에 지니고 살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주일 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좋았습니다. 초등학생 때 평양에서 살면서 평양 제 오 인민학교에 다녔는데 북한에서는 주일에도 교회에 가지 못하게 했고 학교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2년 동안 주일 날에 한 번도 학교에 가지 않고 교회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국 저는 월요일마다 학교에서 벌을 받았고 때로는 정학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때 저의 아버지 김관주 목사님은 신앙생활을 바로 하시다가 감옥에 붙잡혀가서 감옥 생활을 자주 하고 계셨습니다. 저의 아버지께서는 신의주에서도 평양에서도 목회를 하시면서 맨날 감옥에 잡혀가서 감옥 생활을 자주 하셨습니다. 일본 시대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셨고 공산주의 시대에는 공산주의 정책에 반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11살 때 사랑하는 부모님과 고향을 떠나 38선을 혼자 뛰어넘어서 남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계시던 아버지를 찾아가서 주일을 바로 지키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가겠다고 말씀했을 때 아버지는 저를 한참 바라보시다가 그러면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던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 라는 말을 자주 하시던 어머니도 제가 남쪽으로 가겠다고 말씀했을 때 어머니는 울면서 그러면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저는 캄캄한 밤에 38선을 혼자 뛰어넘어서 남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기 11살 때인 1948년 8월이었습니다. 국경을 경비하던 군인들이 우리들을 발견하고 모두 서서 손을 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같이 오던 어른들은 모두 손을 들고 섰습니다. 그러나 저는 서지 않고 혼자서 캄캄한 밤에 남쪽을 향해서 40분 이상 뛰었습니다. 언덕을 넘고 파 밭을 달리고 목에 차는 강을 건너서 남한으로 왔습니다. 저는 조금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스릴까지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고 "주님 사랑"과 "교회 사랑"과 "주일 성수"의 신앙을 지니고 살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에 와서 이모님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밤마다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저는 남한에 와서 한 평생을 부모님을 이별한 고아와 나그네로 슬픔과 아픔을 지니고 외롭게 살았지만 남한에 와서 "주님 사랑"과 "교회 사랑"과 "주일 성수"의 신앙을 마음껏 누리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계속)

조용기 원로목사 설교

기도하는 자는 하늘을 본다



본문: 창세기 15:1~6
설교: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

"이 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창세기 15장 1~6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를 중지하고 마귀와 대화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러다 결국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저주와 사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바라보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은 형편에 있어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1. 당신은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천막집 안에서 밤에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잠에서 일어나라. 빨리 천막에서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천막 밖으로 불러내신 것은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불러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천막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으니까 하늘이 안 보이지요. 천막 안에 있으면 천막 안에 있는 환경만 보입니다. 이미 75세가 되어버린 늙은 아내가 보이고 85세가 되어버린 늙은 자기 모습이 보입니다. 땅바닥을 바라보니까 먼지와 티끌만 보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답답하고 앞길이 캄캄합니다. 하늘이 보이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천막에서 나와 하늘의 별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게 되고 가슴속에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하듯이 우리에게도 "하늘을 쳐다보라.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라.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본주의라는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감각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결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내일 일이 보이지 않으니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안하여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기 16장 6절에는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고 말합니다. 혼자 문제를 끌어안고 전전긍긍해도 마음이 답답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도 여전히 마음이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가 당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국에 사는 한 성도님의 딸이 신장염으로 몹시 고통을 당하였는데 매년 열리는 아세아성도방한대회에 와서 고침을 받았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의 사연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구하는 자가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도가 자기 딸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 아세아방한성도대회에 오려고 하는데 비행기 표를 구할 수가 없어서, 게다가 딸이 신장이 매우 나빠져서 5년이 넘도록 일주일에 두 번씩 투석을 받고 있었는데 요도염까지 심해져서 한국에 가면 죽을 것이라는 모두가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한국에 가면 반드시 낫는다는 메시지를 그 마음속에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비행기표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중국에서 기차를 타고 출발한 것입니다. 기차를 타고 홍콩으로 가서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온 것입니다. 몸이 아픈 딸과 함께 그 먼 길을 여행했으니 그 믿음의 결단이 참으로 대단하지요. 두 모녀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오는 동안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비행기에서 성회 관계자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오산리기도원에서 열린 성회에 참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저의 설교를 듣고 난 후,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서계시는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그 자리에서 저에게 안수기도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즉시 그 딸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 이 성도님과 딸이 환경을 바라보고 포기했더라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했지만 그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니까 하나님께 그 딸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땅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보아야 가슴속에 소망을 품게 되고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늘

그러면 우리가 바라볼 하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친자녀인 것입니다. 저 광활한 우주, 저 무수한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식 간에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여러분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의 친자식이 되고 아버지께서 자기의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로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 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바람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너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사 41:14~16)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 모습이 버러지 같을지라도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한번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천막 밑에 좁디좁은 곳에서 탄식하지 말고 밖에 나와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저 광대한 하늘, 저 무수한 별들을 지으신 이가 바로 우리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며 내 머리털 수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만 바라봅니다. 땅만 바라봅니다. 그러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로 쳐다보고 저 광활한 하늘과 저 무수한 천체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알고 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몸 찢고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을 알게 되면 어떤 형편에 있어도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3. 십자가 대속의 그늘 밑에 거하라

그 다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대속의 그늘 밑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는 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기도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3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신 것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대속의 그늘 밑에 거하면서 죄사함과 용서, 거룩함과 성령 충만, 치료와 건강,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 그리고 영생,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고 하셨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놀라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살이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온 광야에 비유하셨고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뱀에 물렸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게 물려서 독이 올라서 죄짓고 불의하고 병들고 저주와 절망에 허덕이고 종국적으로 죽을 것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지나는 인생이 마귀의 독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언약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의를 약속해 주었습니다.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치료와 건강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부활, 영생, 천국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전인 구원도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무수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늘의 별들같이 반짝이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고 먼지와 티끌을 바라보고 죄와 좌절을 바라보는 사람은 꿈도 희망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꿈을 얻고 믿음을 얻고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만 내려다보고 티끌만 바라보고 울지 마십시오. 천막에서 나와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뿌려 놓으신 저 별들같이 많은 약속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입술의 고백이 달라져서 마침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천막 밑에 웅크리고 앉아 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꿈과 믿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별들과 같이 많은 약속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복 주고 싶다. 희망을 주고 능력을 주고 싶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이나 과학이나 체험이나 감각이라는 천막 밑에 웅크리고 앉아서 "나는 못 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절망이야. 나는 죽을 것이야." 그렇게 하고 있으면 갈 곳이 없습니다. 이것을 탁 털어 천막 밖에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천막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는 내 자녀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은혜를 예비해 놓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생각이 부정적이 되지 말고 긍정적이 되며 절망이 되지 말고 소망적이 되며 어두운 생각을 버리고 밝은 생각을 받아들여야 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밝고 맑고 환한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 달보다 미래는 지금보다 나아질 것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을 것을 꿈꿔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꿈으로 가득 채워 놓고 우리는 주를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외국인이 저를 보고 말하기를, "밤에 한국에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는데 큰 공동묘지 같다."고 말해요. 십자가가 너무 많아서 온통 벌겋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는 공동묘지로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축복의 상징으로 보인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우리 서울을 점령하고 있고 한국을 점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 사함과 용서, 거룩함과 성령 충만, 치료와 건강,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 그리고 영생, 천국을 얻게 되니 축복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이 찾아올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가슴속에 희망을 품고 살 길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4. 신유기도

병든 사람 다 일어나십시오. 문제를 가진 사람도 일어나십시오. 우리 손들어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들, 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땅만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해서 무기력하게 되고 무능하고 되고 탄식하고 고통할 때, 마귀들이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를 찾아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에서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마귀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너희에게 명하노니 이 시간에 물러가라! 머물러 있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일으키신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오니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살길을 열어주시고 참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를 통해서 넘치는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건강을 원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원합니다. 우리는 승리를 원합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별들을 헤아리고 별들을 바라봅니다.

별같이 많은 생생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마음에 별을 가지고 꿈을 품고 꿈이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이 우리 몸속에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운행하는 곳에는 마귀가 다 쫓겨나가고 흑암이 사라지고 광명이 다가오며 아름다운 승리가 다가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독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국장 김진영 인쇄인 허요섭

136-053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년 200,000원 / 6개월 100,000원 / 1개월 20,000원

광고 및 구독문의 02-739-811
대표구좌
농협 355-0018-9278-03 (주)기독일보사

미주 기독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MARKETPLACE
마켓 플레이스

제 1492호 2020년 2월 24일 월요일

홈페이지 www.cplace.co.kr
이메일 riseup0731@gmail.com

부동산

교회 교육관 건물 매매

★교회 교육관 건물★
◎매매가: 2억=〉 1억 9천 (가격절충 가능)
◎건평: 48.5평. 2~4층 각각 15평
/ 1층은 15평 (실평수는 19평 정도됨)
음식점도 가능하도록 허가 나 있음.
◎주소: 충남 아산시 시민로 477
연락처☎ 010-8660-1041

월세가 저렴한 교회임대

◎매물종류: 교회 및 기도원.영성원 가능
◎매물구분: 임대 ◎매물크기: 약 29평정도
◎거래금액: 보증금 300만원 월세 30십
(부가세 별도)
◎매물위치: 부산시 사하구 제석로 67
(부산 사하구 당리동 반도보라 아파트밑)
연락처☎ 010-7758-3423

상가교회 매매

◎매물종류: 교회
◎매물크기: 실평수(23평)
◎거래금액: 매매가-1억 7천만원
(은행융자 5천만원 포함)
임대- 보증금 2000/ 월세 40
◎매물위치:전남 목포시 옥암동
연락처☎ 010-3628-2874

부천 63평 교회임대

◎매물종류: 교회
◎매물구분: 임대
◎매물크기: 63평
◎거래금액: -보2500/ 월40
◎매물위치: 부천시 중동시장 근처
(현재 비어 있음)
연락처☎010-7341-1990

개척교회로서는 최상의 조건

◎매물구분: 임대
◎매물크기: 55평
◎거래금액: 2000/85 시설비-2천(조정가능)
◎매물위치: 인천시 부평구 영성중로 36번길3
◎아파트 지역, 초등학교 정문 앞
◎시설비는 5천정도. (시설비 2천-조정가능)
▶연락처 ☎010-5303-9191

위치좋은 교회매매

◎매물크기: 지분- 249.4㎡ (75.44평)
/ 상가- 122.94㎡(37.18평) (유아실, 목양실)
◎교회 앞 아파트 단지, 주변에 문화예술 회관과
체육시설 (수영장, 야구장, 테니스장)이 있음.
◎매물위치: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한승APT 상가

▶연락처☎010-9626-9175

유동인구 많은 교회임대

매물위치 : 서울시 광진구 노룬산 시장 앞
1. 노룬산시장 앞 유동인구 많음
2. 인테리어 잘 되어 있음 / 카페같은 분위기
3. 방음이 잘되어 있음.
6. 예배실, 화장실1개, 부엌, 사무실겸 목양실,
유아실, 창고3평, 목사개인기도실
▶연락처☎010-8884-0291

청평수양관(기도원) 저가임대

- 건물(2층) 300평
(1층 예배당, 2층숙소, 주방, 식당)
- 대지/산림 13,000평 (힐링코스)
- 접근성 양호 (서울에서 1시간 이내)
즉시입주 / 장기임대 가능
(1층 예배당 200명 이상 수용가능)
▶연락처 ☎010-5779-2368

신축교회 긴급매매(제주)

- 매물위치: 제주 서귀포시(영어교육도시 內)
- 교회운영 즉시 가능
- 영어교육도시: 120만평
- 국제학교(3개) 운영중 (미국,영국,캐나다)
- 공동주택(단지內) 3,000세대
- 거주인원 10,000여명
▶연락처 ☎010-5779-2368

단독교회 건물교환

◎매물종류: 교회
◎매물구분: 매매 및 교환
◎매물크기: 대지 80평/ 건평 170평
◎거래금액: 10억(융자3억8천/ 잔존가 6억2천)
◎매물위치: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대학 인접
▶연락처 ☎031-445-8291
/ ☎010-8234-9729

최고입지 교회매매

대지(303평. 2필지) - 종교용지 271평 + 밭 32평
건물: 교회- 1층(62평) - 소예배실, 식당, 공부방,
관리실,화장실,2층(62평) - 본당. 사무실
사택(29평) - 방3, 거실, 주방, 화장실, 다용도실
◎거래금액: 7억원
◎매물위치: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연락처 ☎010-3727-6607

고급주택 매매

◎매물크기: 대 2805㎡
+ 최고급 유럽식 단독주택 2동
◎거래금액: 15억 ◎매물위치: 경기도 파주시
[매물장점]
-천혜의 자연경관, 조경완벽, 인프라최상 숙소,
-기도원, 연수원, K팝숙소 및 연습실 최적
▶연락처 ☎010-4830-7383

카페 교회임대

◎매물크기: 20평 ◎거래금액: 500/25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주APT상가內
[매물장점]
- 4층 건물에 2층, 바로앞 2300세대 아파트 있음
- 목양실 있음 전기판넬 있어 생활 가능
- 처음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좋은 기회
▶연락처 ☎010-4979-7478

오산 최고입지 교회매매

매물위치 : 경기 오산 단지내상가
해당층수 : 3층의 3층 304호
난방방식 : 도시가스
상가용주차장/ 아파트 건물주차장이용.
잔금치르고 입주/협의바람.

☎ 010-4009-1597

평택 교회임대

매물크기 : 성전 90평+베란다 20평
거래금액 : 전세 3억
(월세시 보증금 5000/ 150만월)
시설비 3500(조정가능)
매물위치 : 평택시 / 해당층수 : 3층
난방방식 : 냉난방시설 및 일부 전기온돌
연락처 ☎010-3778-3233

교회 인수하실 분(급매)

◎거래가격: 매매:4억/임대:1억/150 협의가능)
◎옵션사항: 창고(블록조판넬 지붕 6.1m2)
다용도실 판넬조 판넬지붕 17m2
창고 및 다용도실 판넬조 판넬지붕 33.3m2
◎매물위치: 부산시 북구 구포동 870-26

▶연락처 ☎010-2565-5442

권리금 없는 교회임대

◎매물종류:교회
◎매물구분:임대
◎매물크기:50평
◎거래금액: 1000/70
◎매물위치: 경기도 일산시 서구 대화동 2138-2

▶연락처 ☎010-9130-3440

교회 장소로 최적(포항)

대지 : 178평 건평 : 225평
1 층 : 75평 / 2 층 : 75평 / 3 층 : 75평
위치: 포항시 북구 양덕동
가격: 전화 상담.
▶교회 위치로 좋습니다 (요양원도 할수 있음)

연락처 ☎050-8052-4304

교회매매

◎매물위치: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57-5
◎해당층수: 지상2층 /
지하1층 (건물전체 및 토지전체)
- 서울외각순환도로 차량 5분이내 이용가능
- 단독,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내 위치
-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 구역
▶연락처☎ 010-6237-4486

구인·구직

예배인도자를 모십니다.

기도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조이어스 교회에서 찬양사역자를 모집합니다.
남,여 상관 없습니다.
주일 예배와 주중예배(목요 말씀 집회와
수요여성예배 중)때 함께 섬겨주며,
찬양팀 보컬티칭을 할 수 있는 분!
문의) 김창석 목사 010-5298-0814

시설관리 간사님을 모십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인 가르치고(Teaching)
치유하며(Healing) 전파하는(Evangelizing)
사역을 계승하는 교회이며 교회이름 역시
3대 사역 영문 첫 글자(acronym)를 조합하여
더(THE)사랑의교회 입니다.
소방, 전기, 차량(1종대형) 자격증 소지자 우대
문의) 오정필 010-7152-720

초등부 교육전도사 모집

서울 예수사랑교회에서
초등부 교육전도사님을 모십니다.
-사역: 초등부(초등 4~6학년 60명 출석) 전담
-나이 및 성별: 제한 없음
-학력: 복음주의 신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1. 제출처 : goodtree717@naver.com
2. 문의 : 송성근 부목사010-6863-0691

편집부 직원 모집

규장에서 함께 일할 편집부 직원을 모십니다.
도서 기획, 편집 교정 교열 등 2년 이상
경력자를 모십니다.
임금(연봉)은 채용 결정시 대표자와
개별 협의합니다. 전화 문의는 사양합니다.
이메일로만 문의 접수를 바랍니다.
담당자 이메일 : kyujang0691@gmail.com

파트전도사 구인

대전에 위치한 온누리교회입니다.
우대조건 : 인근거주자
기타자격 : M.div. 재학 및 졸업자,
또는 신학/기교과 학부 전공 후 MA
또는 MACE 재학이상 자
문의 : 김성웅 010-2959-0908
mirseon82@onnuri.org

중고등부 사역자를 모십니다.

서울중앙교회 중고등부 사역자를 모십니다.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 그리고 부모들의 신
앙지도를 지도합니다. 찬양인도 경험이 있거
나 은사가 있는 분이면 우대합니다.
우대조건 : 유경험자,인근거주자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메일 : simonword@hanmail.net

갓피플 기획자 모집

갓피플 성경App 운영, 기획 업무할
기획자를 모집합니다.
★ 기독교어플 및 서비스에 관심이 많으신 분
★ 어플 및 사이트 기획, 운영을 해보신 분
★ 웹기획에 필요한 컴퓨터 사용이 능숙하신 분
문의 : 김희동 02-571-1111
chin179@gmail.com

교육전도사님 모집

경기도 오산동산교회
파트타임 교육전도사님을 모십니다.
유치부, 초등부, 학생부, 청년부

우대조건 : 운전가능자,컴퓨터능숙
문의 : 윤병길 010-8928-0687
bkyun1122@hanmail.net

어린이부 교육전도사 청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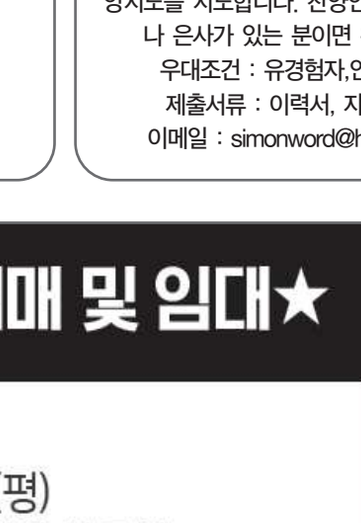
예장합동 동암교회(서울역근처 후암시장 옆)
열심히 사역하실 동역자를 모십니다.
1. 담당부서: 어린이부 (유치, 유초등부)
2. 사례: 월 80만원
3. 제출서류: 자기 소개서, 이력서
4. 제출: kbbj34@hanmail.net
김병중 담임목사 010-3208-3937

★교회건물 매매 및 임대★

◎ 매물크기:
대지-90평 / 건물 137(평)
반지하(53평) 교육관,식당,사무실.
주일학교 예배실.
-1층: 53평 (예배당)
-2층: 31평(사택)

◎ 거래금액:
5억2천만원
(융자 1억7천만원 포함)
/ 예배당 기물드림
(임대도 가능함)

◎ 매물위치: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



연락처 ☎ 010-3055-2367

교회부지·요양원 부지
전원주택 부지 매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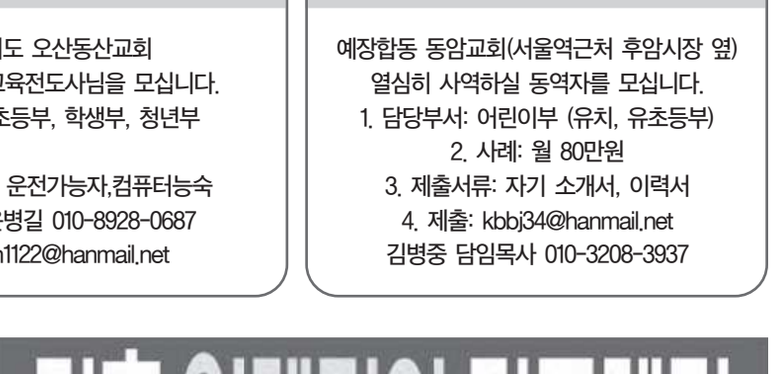
◎위치: 평택시 독곡동(송탄)
◎면적: 5000평
◎지목: 임야 및 대지
◎매매가: 평당 120만~170만
(소규모 분할 매매가능)

※도시가스. 상하수도. 오배수관.
가로등. 인입로 포장완공

연락처 ☎ 010-7238-5696

건축 인테리어 리모델링

저렴한가격으로
정성껏 시공하겠습니다



개척교회 지방교회 상담환영

(주)원영 www.wyinc.co.kr
010-3627-1904, 02-472-1904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금융의 모든 순간
힘이 되는 금융

누구나 언제나 행복한 금융!
당신이 원하는 모든 순간에 힘이 되는 NH농협금융



NH농협금융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NH농협리츠운용 NH선물 NH농협카드

이 시대의 트렌드

이 시대가 원하는 새로운 라이프
농업·농촌·농협에서 즐기세요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 NH 농협

오늘의 말씀

옥문을 여시는 주님을 바라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행5)'

부활신앙. 푯대를 이루기 위해 몸부림 치는 치열한 도전,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온 몸을 내 던지는 헌신, 이것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원동력, 곧 성령의 역사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 안에는 한편으로 현실에 안주하며 쉽고 편하고 늘 하던 대로 살아가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크게 좋아지지는 않더라도 더 나빠지지 않고 차츰 안정을 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입니다. 시대에 종교권력을 누리면서 현상유지를 바라면서 자신이 누리는 안위와 권위를 조금이라도 침범해 오는 자들에 대해 무참히 핍박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또한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보고서 기뻐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역사를 일으킨 사도들을 시기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마음이 메말라도 어떻게 이렇게 메마를 수 있고, 눈과 귀가 닫혀도 이렇게 닫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 보다는 자신에게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모든 것의 판단의 잣대가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행5)'

사도들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시기하여 오히려 적대자가 되어 막아섭니다. 감옥에 가두어 두면 사도들을 통해 일어나는 역사는 끝이 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거기까지가 그들의 최고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가 그들의 한계입니다. 예수를 통해 제자들에게 열려진 빈 무덤의 사건과 같이, 그들에게 빈 감옥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들은 영문을 모르고 어찌 할 줄을 모릅니다. 깨닫고 통회하고 주께 돌아와야 함에도 그들의 악은 다시 사도들



을 붙잡고 또 막아서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행5)'

하지만 주의 제자들은 그 되어지는 모든 일 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인해 핍박과 능욕을 받는 일에 기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갇힌 사도들을 풀어 놓습니다. 감옥인들 가둘수 있겠습니까? 죽음인들 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이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의 명령을 따라 살기에 죄악된 세상으로 부터 오는 많은 곤란과 환란을 겪는 여러분, 이 한가지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하나님은 갇혔던 자를 풀어 그 자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힘있고 능력있는 성령의 통로로 쓰시는 분이심을 말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좌절하지말고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수 많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 감사하며 그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에 감사하며 또 항상 변함없이 그 통로가 되기를 늘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들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한 기도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전하시는 크고 높으신 만유의 대 주재이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피로 세우신 이 대한민국 땅과 온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우리의 죄와 무관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건하다하지만, 불경건하고 불의했던 우리 안의 죄악된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발걸음을 돌이켜 주께로 다시 향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때에서부터, 주의 택하신 백성이 다른 길로 갈 때에 참 아들과 같이 여기사 징계로 그 죄악의 걸음을 돌이키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의 경고로 알아 진정으로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주를 경외치 않는 세상의 거짓 지도자들이 경외로우신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깨달아 두려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교회와 선교에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게 하소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바이러스를 여호와라파의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오른손을 높이 드사 성령의 권능으로 차단, 치유, 회복시켜주시고, 이로 인해 주의 지상대명령을 받들어 참마음으로 순종하는 복음의 사도들과 그 사역지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복음 확산과 교회 부흥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소서.

흩어진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위기의 때 믿음으로 더욱 기도하게 하시며 지혜와 담력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자리마다 찾아가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28:31-



테마 성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일깨워주는 성구 7가지

1. **잠언1: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2. **잠언8:13**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3. **레위기 26:2**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4. **욥기 2:3**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5. **시편 34:9**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6. **시편 112:1**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7. **시편 115:11**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그(예수)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 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사도행전2장)'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는 기이한 눈 빛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나? 라는 의문들, 술에 취하였다고 하는 폄하와 불신들,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베드로는 일어서 외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 가운데 부으신 약속하신 성령이시다! 예수와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예지예정을 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아! 너희는 너희가 승리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러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가 있노라! 라고 외칩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하신 승천과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전하며 생각과 오해들을



반전시킵니다.

십자가는 저주이다! 십자가는 패배이다! 이 생각을 바꾸어 놓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먼저 십자가 안에 있는 비밀한 세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시를 보지 못하였기에, 절망하고 저주하며 십자가에서 떠나 예수님을 홀로 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이후 다시 깨달아 이제 오히려 증거합니다.

아는 것! 그리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주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많은 일들, 이해하기 힘든 비극 속에서 베드로는 그 안에 도도히 살아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너무나 뜨겁게 성경의 예언과 계시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천명이 되는 사람이 그 날로 세례를 받고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볼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설명해 내고, 증거할수 있다면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주의 제자들을 날마다 늘어 갈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 이전과 다르게, 예수 십자가를 외쳤던 제자들, 그리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에게도 이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가감없이 주의 역사를 증거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세상 주관하심을 깨닫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믿으세요"라는 말이 주는 거부감

신간 『믿음을 의심하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라는 말의 무게는 어느 정도일까. 혹시 너무 쉽게 '믿으면 다 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신간 『믿음을 의심하다』는 믿음의 본질을 성찰하는 책이다. 저자 노진준 목사는 목회할 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믿으면 병이 낫나요?'처럼 믿음에 관한 것이었다. 도대체 믿음이 뭔지, 성도들은 헷갈려 하는 것 같았다. 자신도 시원한 대답을 주지 못했다. 목회의 자리에서 물러난 후에서야 믿음의 정체가 뭔지를 붙들고 씨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자는 '그냥 믿으세요.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식의 말은 거부감을 느끼게 한다고 말한다. 마치 심오한 진리를 다 깨닫기라도 한 듯 자신 있게 믿는다고 말하는 데서 느껴지는 "지적, 윤리적 거만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고.

그에 따르면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지적인 동의와 신뢰다.

이 중 '지적인 동의'는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규정하고, 그것에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일컫는 측면을 말한다. '


노진준 목사 ⓒ 한길교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같은 말에 동의하는 것이다. 이것은 믿음의 출발이고 기본이지만, 믿음의 충분조건이 되지는 못한다. 야고보 사도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야고보서 2장 19절)라고 한 데서 보듯, "단순한 지적인 동의를 믿음이라 부르다면 귀신들도 그런 동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

믿음의 또 다른 요소는 '신뢰'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믿음에 '지적인 동의'만 있고 '신뢰'가 없다면, 분명히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과 관계 없는 삶을 살게 된다. 마치 "나는 당신이 유능한 변호사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제 문제를 당신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에 따르면 '믿기만 하면 된다'는 가르침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믿음의 중요한 요소인 신뢰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교세 확장에 치우치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 되실 때 참된 구원이 있음을 믿고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겠다는 지적인 동의'라고 다시 전할 때가 왔다"고 말한다.

믿음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않는 것. 믿음이 구원의 통로이기는 하지만 말 그대로 통로에 불과할 뿐,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신뢰해서 그 통로(믿음)를 택한 것이지 통로가 우리를 의롭게 해주기 때문에 그 통로를 택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할 때에도, '믿음'이라는 말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는 '믿음'이라는 말은 현대인들에게 더욱 무게감 있게 들리기를 바란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혹은 '믿는다고 인정하기만 하면'이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여기 지적인 동의와 신뢰의 요소가 다 포함됩니다."

저자는 미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목회학과 변증학을 전공했으며, 미 볼티모어 갈보리장로교회와 LA 한길교회에서 목회한 바 있다. 이민선 기자


믿음을 의심하다
노진준 | 두란노 | 332쪽
17,000원

스마트폰이 신앙에 미치는 악영향

신간 『스마트폰, 일상이 예배가 되다』

스마트폰이 신앙에 미치는 악영향을 파헤치는 신간이 발간됐다. 미 신학자 토니 라인키(Tony Reinke)가 쓴 『스마트폰, 일상이 예배가 되다』이다. 이번 책에서 저자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영적전투 중 하나는 다름 아닌 "폰에 대항해 싸우는 싸움"이라고 말한다.

현대인들이 왜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첫째, 중요한 일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일에 대한 압박이 클 때, 사람들은 곧잘 폰을 집어들고 SNS 앱을 켜서 남들 소식을 팔로우하곤 한다.

둘째,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다.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별로라고 판단되어서 그에 대한 멸시를 드러내고 싶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스마트폰에 얼굴을 틀어박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당신보다 우월한 나는 당신과 어울리기 싫다'는 메시지를 쉽게 전할 수 있다.

셋째,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일의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서다. "조용한 침실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면서 자기 자신과 현실, 하나님만 생각한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다." 유익하지만 지루한 침묵 대신, 한손에 잡히는 끝없는 즐거움을 선택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한마디로 스마트폰은 중요한 것에 대한 집중을 흐트려놓는 일등공신.

그렇다면, 스마트폰으로 인해 집중이 흐트려지는 것이 왜 신앙에 위협이 되는가? 집중력이 분산될 때 "우리 영혼은 하나님에 대해 눈멀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해 눈을 감고, 그 대신 세속적 염려, 부의 축적, 개인의 안위에 집중한다. 이러한 자기중심적 행위의 결과는 치명적이다. 그것은 "복음의 열매가 자라는 것을 가로막고 복음의 소망을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만듦으로써 우리 영혼을 질식시키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과의 교제도 가로막히게" 된다. 이런 사례는 성경 속 인물 중 마르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마르다는 식사를 준비하는 데 정신이 팔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쳤다. "삶의 초점을 잘못 맞추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열심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것도 보지 못한다.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리감을 느끼신다."

해결책은 뭘까. 저자는, 먼저 스마트폰의 영향을 인지하는 데서 시작하라고 조언한다. 이를 위해서 자가 점검이 효과가 있다.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이 '무시로 즐기는 재미에 중독되어 있음을 드러내지는 않는지', '남으로부터 지지받고 싶다는 강박적 욕구를 드러내지는 않는지', '하나님과의 성실한 교제를 방해하지는 않는지' 등을 체크하는 것이다.

또 스마트폰에 시간을 내주는 대신, 가까이 있는 사람들 - 피와 살을 지닌 사람들 - 을 소중히 여기고, 읽기 능력을 회복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고독을 유익하다 여기며,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기뻐하라고 제안한다.

저자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은 우리를 고요하게 하고, 스마트폰에 기대할 만한 것을 훨씬 초월하는 영원한 소망에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이 뿌리를 내리게 한다"며 스마트폰보다 그리스도에 집중하라고 권고한다. 이민선 기자


스마트폰, 일상이 예배가 되다
토니 라인키 | CH북스 | 304쪽 | 13,000원

2월, 작가들의 말말말


알리스터 맥그래스, 『알리스터 맥그래스의 사도신경』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어떤 것을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는 이들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한 분의 인격적인 존재를 믿고 따른다. 신앙은 마치 배의 닻처럼 우리를 그 신앙의 대상이신 분과 연결해 준다. 배에서 내린 닻을 통해 그 배가 바다 밑바닥에 안전하게 고정되듯이, 우리의 신앙 역시 우리를 하나님께 안전하게 연결해 주는 것이다. 신앙은 믿는 데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며, 그 상태에 평안히 머물게끔 해준다.


루이스 앨런, 『설교자의 요리문답』
설교자이자 제자로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가 모든 성경의 핵심에 계심을 발견하는 것이다. 달아오른 마음은 금세 타오르기 시작할 것이다. 복음의 사랑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그분을 신뢰하고 싶어질 것이다. 제자로서 우리가 받은 부르심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 타오르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설교자로서 우리가 받은 부르심은 그분에 대한 신뢰와 찬양을 표현하며 그분을 선포함으로써 마음속에 그 불을 옮겨붙이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제시하기만 하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김기동, 『고구마전도』
전도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은 당신이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다. 그 사랑은 나를 구원해주신 십자가 사랑이다. 그 사랑을 통해 받은 복을 세어보라.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난 후 이웃을 바라보라. 그 이웃의 영혼에 예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가 보일 것이며, 생명이 그 속에 없는 것을 보는 순간 당신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전도하게 되는 것이다.


플레밍 러틀리지, 『예수가 션택한 길』
우리가 삶을 알면 알수록, 살면서 실망과 슬픔을 경험하면 할수록, 삶이 우리 바람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우면 배울수록, 성경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 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박제된 인물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입니다. 불평하고, 말다툼하고, 간통하고, 거짓말도 합니다. 그들도 고통을 당합니다. 전쟁에서 지고, 병에 걸리고, 압제자에게 착취당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지금

중국 학자들, 정부에 언론의 자유 관련 5대 요구 제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언론의 자유 통제한 것이 화를 초래해

5대요구 제기, 2월 6일을 언론자유의 날로 지정하기를 촉구

언론자유는 금지할 수 없는 것, 통제하면 재난

중국 우한의 의사 리원량은 온라인에 바이러스를 경고하고 나섰다가 정부에 경고를 당하고 난 이후 환자를 진찰하다가 감염이 되어 사망했다. 그는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한 첫 의사가 되었다. 이번 사건은 언론자유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백 명의 중국 학자들은 인터넷에 청원서로 청원을 올려서 국가의 입법기구에서 인민의 언론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우한시 중심병원의 안과의사 리원량은 작년 12월말에 위쳇 채팅방에서 우한폐렴의 심각성을 경고했다가 다른 7명의 의료인들과 함께 경찰에 불려가서 괴담을 유포했다며 경고를 받았다. 그 후 우한폐렴사태가 발발했고 리원량은 1월 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어 2월6일 결국 사망했다. 이번 사건은 대중들의 분노를 촉발했고 중국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고 바이러스에 관한 정보를 은폐했다며 분노하고 있다.

리원량 의사는 사망하기 일주일 전에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정부가 바이러스에 관한 정보를 더 일찍 발표했더라면 상황이 더 좋았을 것이라면서 더 공개적이고 투명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본인이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서 리원량은 자신은 선한 뜻에서 출발해서 억울하지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 인민 대표 대회, 국무원 및 전국 동포에게 드리는 서한"이라는 제목의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이 공개서한은 수십명의 학자, 변호사, 작가, 인권운동가들이 실명으로 서명했다.

이 서한에는 "후베이성과 전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부의 언론의 자유를 통제로 초래한 인화(人禍)"라고 규정하며 "리원량의 입을 막아서 바이러스가 창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중국뿐만이 아닌 전 세계가 중국의 언론 통제로 인한 대가를 치루게 되었다"며 이로인해 리원량이 세상을 떠나면서도 눈을 감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한 사회는 한가지 목소리만 있어서는 안된다."는 리원량의 유언을 인용했다. 또 "건강한 사회는 한가지 목소리만 있어서는 안된다. 언론자유, 인권존엄은 모든 사람의 생존의 기초이며 나라를 세우는 기초이며 언론을 통제하는 것은 공권력으로 저지르는 범죄이다."라고 강조했다.

공개 서한은 리원량 의사의 장례식을 성대히 치러서 기념할 것을 요구했으며 5대요구를 제기했다.

첫째, 매년 2월6일을 국가에서 언론자유의 날로 지정해줄 것, 언론자유를 통제하는 "형법", "치안관리처벌법" 등을 폐지할 것. 둘째, 사상과 신앙, 언론, 정치적견해를 인해 처벌받은 모든 국민을 석방하고 손해배상을 해줄 것. 셋째, 미디어의 자유보도와 인터넷자유언론을 개방할 것. 넷째, 적십자회 등 어떤 기관에서도 구호사업을 독점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민간의 자원구조대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할 것. 다섯째, 국책회의를 소집하여 당의 정치, 관리와 시민, 정치와 상업, 양안삼지(兩岸三地)(중국본토와 홍콩, 마카오, 대만)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반성하고 전면적인 개혁과 미래발전의 새로운 방향성을 확립할 것이 그것이다.

공개서한에 서명한 칭화대학 교수 궈위화(郭于華)는 BBC중국어판과의 인터뷰에서 "건강한 사회는 한가지 목소리만 있어서는 안된다."며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재난이다. 그것은 재난을 은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재난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징 인권운동가 후지아(胡佳)는 도시를 봉쇄하고 거리를 봉쇄할 수는 있지만 언론의 자유는 봉쇄할 수 없을 것이며 사람들의 정서가 온라인을 통해서 폭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는 사람이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명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의 건강 등 가장 기본적인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드디어 이 일을 통해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이다."

우한폐렴이 발발한지 2개월이 넘어서고 있는데 감염자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가정예배문

믿음으로 노아는

성구: 히브리서 11:7
찬송가 : 통합 344장 이 눈에 아무증거 아니뵈어도(새찬송가 545장)

확실치 않는 그리고 결국 사라져버릴 것을 좇아 하루하루 애쓰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영원히 남아지는 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복됩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일을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믿음의 장, 히브리서11장에서 '믿음의 사람 노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노아의 믿음은 첫째.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고 둘째.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고 셋째. 그 집을 구원한 일 입니다. 이것이 그를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로, 믿음의 계대에 반열에 오르게 한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앞의 것을 위해 살아가기 쉽습니다. 작게는 지금 당장, 길게는 내일, 길면 몇 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미래의 일을 예비한다는 것은 확신과 결연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보이지 아니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고, 120년의 기간을 그 말씀을 준행하였다 하였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하셨습니다. 주의 구원의 한 날을 기다리고 있는 믿는 자들은 새겨들으라 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경고하시고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 많은 이들이 경고를 받을지 모릅니다. 많은 교회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많은 이들이 선택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받는 자들은 적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다가 그 경고하심을 뒷전에 놓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 받아 경외함으로 시대의 방주를 예비하는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 말씀하심을 받고 무엇보다 경외함으로 예비하여 자신과 자신의 집을 구원하여 시대의 노아 같이 믿음의 사람이라, 의의 후사라 칭함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

사랑의 주님,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에 보지 못 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내 자신과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의의 후사라 칭함 받은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역사

1582년 오늘 교황 그레고리오 13세가 역법 개정을 위한 칙서를 내리다.

그레고리력(Gregorian calendar)은 현재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양력(陽曆)으로, 1582년에 교황 그레고리오 13세가 율리우스력을 개정하여 이 역법을 시행했기 때문에 그레고리력이라고 부른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기원전 46년에 제정한 율리우스력이 128년마다 1일의 편차가 나는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1582년 2월 24일 제정해 같은 해 10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역법 이름의 주인공인 교황 그레고리오 13세는 율리우스력의 400년에서 3일(세 번의 윤년)을 없애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했다. 그래서그레고리력은 약 3,300년마다 1일의 편차가 난다.

그레고리력의 채택 동기는 부활절을 언제 지켜야 할 지에 대한 초대교회의 의견 차이와 갈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325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해 소집된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부활절을 모든 기독교인들의 교회력 시기로 통일하기 위해 춘분 이후 첫 보름 다음의 일요일로 정하였고, 춘분을 그 해 율리우스력에 따라 3월 21일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사용하던 율리우스력은 실질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 햇수와 날의 계산에서 작은 편차가 있었다.

즉, 율리우스력의 한 해의 길이는 정확히 365일 6시간이며, 이는 천문학적으로 계산한 1년의 길이보다 약 11분 14초가 길다. 이 편차가 제1차 니케아 공의회로부터 1,250여 년 동안 누적된 16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춘분일이 325년 당시보다 열흘이 빨라진 3월 11일 즈음이 되어 달력에 큰 오차가 생겼다.

이에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에서 당시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오3세에게 역법 개정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1582년 2월24일 교황의 칙령으로 역법의 개정이 시작되었다. 그 후 같은 해 10월 4일 교황 그레고리오 13세가 율리우스력을 개정한 새 역법을 시행하였고, 개정한 달력은 그의 이름을 따서 그레고리력으로 부르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1895년 10월 26일(음력 9월 9일)에 조선 정부(을미개혁, 김홍집 내각)가 같은 해 음력 11월 17일을 1896년 1월 1일로 하였고, 태양력 채택을 기념하여 연호를 건양(建陽)으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현재 대한민국도 그레고리력을 쓰고 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D.F장학회' 창립 및 장학금

◈뇌사 장기기증인 3·40대 비중 높아…미성년 유자녀 학업 지속 어려워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이하 본부)가 20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본부 회의실에서 'D.F(도너패밀리) 장학회 창립 및 제1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측은 "장기기증이라는 숭고한 나눔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한 뇌사 장기기증인의 유자녀들이 생명나눔의 자긍심을 가지고,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장학회가 발족했다"고 했다.

본부 박진탁 이사장은 "최근 5년간(2015~2019년) 뇌사 장기기증인 2,488명 중 3·40대는 874명으로 약 35%에 달한다"며 "이는 경제적 지원이 필수적인 미성년 자녀를 둔 수많은 가장들이 뇌사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D.F장학회는 설립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장기기증인의 생명나눔 정신을 알림 △유가족들이 생명나눔 실천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지원 △유자녀들이 어려운 형편 때문에 꿈과 재능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뇌사 장기기증인 유자녀들에게 학비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생명나눔 자긍심 품고 가정·학교생활 충실한 유자녀 8명 선발, 장학증서 수여

D.F장학회는 이날 출범식에 이어 최초로 뇌사 장기기증인 유자녀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첫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들은 생명장학생(대학생) 김조이 군(故 김기호 씨 자녀, 대학교 진학 예정), 김수린 양(故 김종운 씨 자녀, 대학교 3년), 홍은하 양(故 홍순영 씨 자녀, 대학교 4년)과 사랑장학생(고등학생) 이규린 양(故 이현규 씨 자녀, 고등학교 진학 예정), 김현진 군(故 박선화 씨 자녀, 고등학교 3년), 배진우 군(故 배종수 씨 자녀, 고등학교 3년), 김조엘 군(故 김기호 씨 자녀, 고등학교 2년), 김주희 양(故 김일영 씨 자녀, 고등학교 2년) 등 모두 8명으로 장학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했다.

이날 장학생 대표로 소감을 전한 홍은하 양(21세)은 "죽는 순간에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여러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떠난 아버지와 큰 슬픔 앞에 숭고한 결정을 내린 어머니를 늘 존경해왔다. 오늘 다시 한 번 이런 부모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느끼고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었다"며 "단단함과 따뜻함을 함께 지니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아 저 역시 성실히 꿈을 향해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홍 양은 2007년 뇌사 장기기증을 실천해 6명에게 생명을 선물한 故 홍순영 씨의 딸로 이후 온 가족이 본부의 도너패밀리 행사에 참여해왔다. 또한 앞으로 남아있는 가족이 모두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고자 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본부 박진탁 이사장이 김조이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지난 2012년 아버지 故 이현규 씨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생명을 나누고 떠난 뒤 어머니와 두 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이규린 양(고등학교 진학 예정)은 남편의 갑작스런 부재로 생계를 떠안게 된 어머니를 대신해 지금껏 동생들을 챙겨왔다. 아버지의 사고 당시 자신도 8살의 어린 나이었지만 5살, 7살 터울의 어린 동생들을 돌보며 집안일을 하고 어머니를 위로하는 등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양은 "아빠의 좋은 뜻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응원하고 격려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다짐을 밝혔다.

이들 외에도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가정과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들로서, D.F장학회는 앞으로도 뇌사 장기기증인 유자녀들이 생명나눔에 대한 자긍심을 품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가족 잃은 슬픔을 생명나눔의 자긍심으로 변화…유자녀 장학 사업 중요"

이번 1차 장학증서 수여를 위해서는 신한은행 충정로지점(신촌지역단장 이규민)과 KB국민은행 중곡동지점(지점장 구자용), 배자화세무회계사무소(세무사 배자하) 등 기업 및 단체, 네이버 해피빈 모금을 통한 개인 후원, 그리고 여의도순복음성북교회(담임목사 정재명)를 비롯해 발음교회(권오륜 목사), 구산교회(담임목사 조성광), 목천교회(담임목사 김상원), 안성중앙교회(담임목사 송용현), 주하늘교회(담임목사 이정원) 등 교회의 후원이 잇따랐다.

D.F장학회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뇌사 장기기증인의 유자녀인 중·고·대학생 각 5명씩 15명을 나눔·사랑·생명 장학생으로 선정해 장학증서를 수여할 방침이며, 장학금은 본인 혹은 주변인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본부 박진탁 이사장은 "생명나눔을 실천한 분들의 가족들이 이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학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요청했다.

이어 "현재 이뤄지는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에 대한 장례비·진료비 등 금전적 보상은 생명나눔의 숭고한 정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대가성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일시적 금전 보상보다는 이번 장학회와 같은 재단 혹은 기금 마련을 통해 유가족들을 예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형구 기자

"한 분 하나님 위한 '새가정' 되어야"

기독 가정잡지 '새가정' 제64회 총회 열려

기독교 가정잡지 '새가정'(회장 최희성)이 20일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정-우는 가정과 함께'라는 주제로 제64회 총회를 개최했다.

1부 개회예배의 인도는 새가정 부회장 이동화 권사가 맡았고, 새가정 직전회장인 주금실 장로가 기도했다. 이후 조성은 목사(가정협 기획·출판부장, 해오름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마태복음 19:6)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조 목사는 "1992년 가정생활협회 회장을 하셨던 조승근 목사님이 저의 아버지여서 새가정 잡지가 익숙하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말씀을 준비하며 결혼식에서 자주 쓰이는 본문이 떠올랐다"며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다.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지만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둘이 아니라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가정생활협회와 새가정은 결코 여성만을 위한 잡지나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하나의 가정을 위한, 하나의 나라를 위한 그리고 한분이신 하나님을 위한 새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쫓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설득해 그의 죄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라며 "하나님께는 어느 영혼이든 값지다.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새가정, 가정생활협회, 이 땅의 모든 교회, 모든 크리스천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주최 측은 비전선포식 순서를 갖기도 했다. 새가정 총무 전혜선 목사는 "비전선포식을 하는 이유는 새가정이 문서선교의 사역 위에 연합기관으로서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사명을 다하려 하기 때문"이라며 "비영리단체로 등록하며 다시 서는 새가정이 되겠다는 결의와 다짐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기독교 가정잡지 새가정의 제64회 총회가 20일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열렸다. © 전민수 기자

새가정은 비전선언문에서 "6.25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1954년 1월 월간 새가정이 창간되어 전쟁으로 가정이 해체되었을 때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정의 회복을 위한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눈물, 땀과 헌신으로 시작한 문서선교는 66년이라는 긴 시간을 멈추지 않고 달려왔다"고 했다. 이어 "새가정은 일치와 연합의 정신으로 여성들이 만든 연합기관으로 한국교회와 사회를 향한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 왔으며 여성에게 공적인 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여성들의 입지를 넓혀 왔다"며 "이제 새가정은 믿음의 선배들께서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을 잘 전수받아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했다. 이후 비전 선언을 축하하며 새가정 위원들이 특송(여선교회 메들리)한 뒤 찬송과 조성은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 했다.

최희성 새가정 회장은 총회 개회인사에서 "지난 63회기는 새가정에 큰 변화가 있는 회기였다"며 "정관과 조직이 새롭게 개편되고 비영리단체로 설립되는 뜻깊은 회기였다"고 했다. 이어 "새가정은 오늘 총회를 시작으로 시대의 변화와 요청에 귀 기울이며 여성들의 연합기관으로 더욱 굳건히 서려 한다"고 전했다.

한편, 새가정과 가정생활협회의 새 회기 사업으로는 5월 가정주간 사업(가정평화 캠페인 주제 선포식, 가정평화상 시상식, 5人5色 콘서트), 6월 가정폭력 예방 세미나, 9월 가정 사역 연구 세미나, 10월 새가정 찬양축제 등이 있다. 전민수 기자



배우 김고은, 저소득층 위해 1억 원 상당 마스크 기부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회장 양진옥)는 배우 김고은 씨가 코로나19 예방 물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을 위해 1억 원(마스크 4만 장가량)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굿네이버스 관계자는 "김고은 씨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저소득 가정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물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기부를 결정했다"며 "전달된 기부금은 굿네이버스 전국 사업장을 통해 면역력이 취약한 아동 및 노인 그리고 저소득 가정에 마스크를 전달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황성주 굿네이버스 나눔마케팅본부장은 "저소득 가정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큰 나눔을 실천해준 김고은 씨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마스크가 필요한 분들에게 김고은 씨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배우 김고은 씨는 "코로나19 국내 확산 방지와 추가 감염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며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며 "경제적인 이유로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배우 김고은 씨는 드라마 '더 킹'촬영 중이며, 올해 영화 '영웅'으로 관객들을 만나는 등 활발한 배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환경부 자연순환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강원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2천만 원을 기부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전민수 기자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회장 양진옥)는 배우 김고은이 코로나19 예방 물품 구입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제공=BH엔터테인먼트

'교회 안에 침투한 신천지 식별 요령' 화제



기독교 SNS채널 '교회친구'가 21일 게시한 카드뉴스 '교회 안에 침투한 신천지 식별 요령 TOP 9'이,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신천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카드뉴스에선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어플의 종류를 통해 신천지 교인인지의 여부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고 했다. '희소식''S라인' '에스카드' 'We Are One' 등이 그것이다.

또한 "신천지인들은 특정 단어나 문장을 사용한다"며 '길예비사자' '말씀에 짝이 있다' '부녀부' 등을 예로 들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비웃거나 딴짓을 하고 담임목사나 리더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거나 이간질 시키는 등의 행동을 한다"고 했다.

이어 "성도들에게 성경공부와 훈련을 시키겠다고 자청해서 나선다면 일단 주의를 해야 한다"며 "공부한 사람들이 예배시간에 졸거나 딴전을 피우는 일들이 일어나거나 교회를 떠나가는 일이 반복되면 신천지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했다.

또 △교회 봉사는 많이 하지만 자신의 연락처나 주소는 가르쳐 주지 않고 성도들의 개인 연락처들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려는 경우 △과거 다른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하지만 정작 그 훈련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 등의 예를 들었다.

전민수 기자

제이어스 라이브워십 녹음집회 'BREAKTHROUGH' 재취소

제이어스가 25일에 예정되었던 라이브워십 녹음집회를 최종 취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제이어스가 코로나19로 인해 연기하려고 했던 월 정기찬양집회를 방역을 철저히 하는 조건으로 예정된 날짜인 25일에 진행하기로 했다가 최근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재취소했다. 이번 녹음집회는 2월25일 용인제일교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BREAKTHROUGH 앨범 제작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하여 방청객 없이 녹음만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녹음앨범은 전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제이어스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변동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쉽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길 소망합니다."고 말했다.

조성호 기자

방송 편성표

	시간	CBS TV	CTS 기독교TV	CGN	GoodTV	Cchannel
오전	5:00	00 다시 보는 명설교 The울림 30 TV 설교/삼일교회 송태근 목사	00 CTS새벽예배-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 30 생명의 말씀-이경은 목사(순복음진주초대교회)	00 생명의 삶 2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명설교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 30 말씀의샘터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	00 성지가 좋다 30 복음강단 - 포항중앙교회 손병렬 목사
	6:00	00 TV 설교/[생명의 양식] 대한교회 윤영민 목사 30 달콤한 QT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00 생명의 말씀-제인호 목사(창원가음정교회) 30 생명의 말씀-권성수 목사(대구동신교회)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00 비전설교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 30 여주봉 목사의 회복과 부흥으로 가는 길	00 진짜 영성공부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7:00	20 이 땅을 사랑한 예수의 증인들 30 TV 설교/축복의 말씀 새계명교회 차영아 목사	00 CTS 뉴스 20 신앙에세이 30 생명의 말씀-김서택 목사(대구동부교회)	00 [말씀]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40 하용조 목사의 성령의 사람(영어자막)	00 꿈의교회 드림워십 30 비전설교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	00 C채널 REPORT 플러스 30 다시보는 성지가 좋다 50 주의 빛 안에서
	8:00	20 CBS성서학당:누가복음 59강 - 송태근 목사 "검을 사라고?" (본문 - 누가복음 22:35-46)	00 생명의 말씀-정의호 목사(용인기쁨의교회) 30 김종원	20 목사들의 복수(복음수다) 5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아침운동)	00 월드와이드 10 비전설교 시애틀형제교회 권준 목사 40 말씀의샘터 소명중앙교회 김대성 목사	00 C채널 특집 다큐멘터리 예수님의 여정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9:00	10 새롭게 하소서:[현실판 사랑의 불시착]'김승근 목사, 박예영 이사장'	00 내가 매일 기쁘게 30 CTS특별기획-1교회 1학교 세우기	00 [말씀]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40 선교하시는 하나님 - 다양한 선교적 접근 편	10 GOODTV 스페셜 백석총회 목회자 영성대회	00 성지가 좋다 30 장학봉 목사의 통&톡
	10:00	00 CBS파워특강/CBS 파워특강:안호성 목사 : KO승이 아니라 판정승입니다 1부 40 나를 살리는 찬송	00 7000미라클-열방을 향하여 50 매일 무릎기도	20 [말씀] 황성은 목사(창동염광교회)	10 김자현 목사의 성경강해 40 금주의 말씀송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11:00	00 올포원	00 [생방송] CTS 뉴스 50 어린이 찬양-우리 찬양팀을 소개합니다 한 곡 감상하기	0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경산중앙교회- 2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00 말씀의샘터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 30 은혜와 진리의 성경강해 박준형 목사	00 힐링토크 회복 50 성찬의 소리 - 성찬교회 오원호 목사
	12:00	00 어른성경학교 50 다시 보는 명설교 The울림	00 추억의 CTS 10 TV찬양예배 Sing Sing Sing 30 생명의 말씀-김명재 목사(상남교회)	00 CGN 투데이 2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00 이평찬목사의 행복한 만남 20 말씀의샘터 한울림교회 신숙자 목사 50 비전설교 하늘꿈교회 신용대 목사	20 비전메시지 -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 50 삶과 만나
	13:00	20 특집 프로그램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00 생명의 말씀-이용우 목사(마산동부교회) 30 4인 4색 신은경 교수의 나이들어 인생 멋있게 사는 방법	00 [말씀]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4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20 비전설교 가나안교회 장경덕 목사 50 하늘양식 순복음참아름다운교회 안병찬 목사	00 성지가 좋다 30 말씀의 창 - 명문교회 이덕진 목사
	14:00	00 TV 설교/광은교회 김한배 목사 30 다니엘 기도회	00 [생방송] 콜링갓 50 #클립CCM	20 생명의 삶 40 저스트 텐 미닛 〈위러브〉 50 [말씀] 박성민 목사(한국대학생선교회)	20 세계테마기행	00 장경동 목사의 행복플러스 50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후	15:00	10 잘 믿고 잘 사는 법 20 영혼의 양식/글로벌축복교회 강은숙 목사 30 TV 설교/당진동일교회 이수훈 목사	00 7000미라클-열방을 향하여 50 신앙에세이	30 GCM 복음도시운동 세미나	20 금주의 말씀송 40 오 자유여!	00 힐링토크 회복 50 찬양하라 내 영혼아
	16:00	00 CBS성서학당:인물로 보는 성경 16강 - 최정권 목사 "부르심 없이는 안 됩니다" (본문 - 출애굽기 2:11-3:12) 50 TV 설교/일산순복음영산교회 강영선 목사	00 CTS 두란노 성경교실-김종원 목사 30 생명의 말씀-장경덕 목사(분당가나안교회)	10 [다큐멘터리] 오두막 그 후 40 [말씀] 류응렬 목사(와싱톤중앙장로교회)	40 말씀의샘터 행복한교회 조영구 목사	00 C채널 REPORT 플러스 30 장학봉 목사의 통&톡
	17:00	40 CBS 교회소식 50 다음세움 2	00 생명의 말씀-전태식 목사(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50 빛으로 소금으로	20 스티븐 엄의 하나님의 마음 50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실천 편〉	10 비전설교 송전교회 권준호 목사 40 말씀의샘터 부천성만교회 이찬용 목사	00 스페셜 힐링토크 회복 50 비전메시지 - 수원은혜교회 황유석 목사
	18:00	30 TV 설교/송도가나안교회 김의철 목사	0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 30 4인 4색 신은경 교수의 나이들어 인생 멋있게 사는 방법	20 믿음의 고백, 찬송이 되다 30 [말씀]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10 행복한 TV	30 복음강단 -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
저녁	19:00	00 TV 설교/전주바울교회 신용수 목사 30 TV 설교/종교교회 최이우 목사	00 내가 매일 기쁘게 30 전국교회는 지금	10 [말씀] 최경욱 목사(또감사선교교회) 50 선교하시는 하나님 - 다양한 선교적 접근 편	00 세계테마기행 50 말씀의샘터 예수소망교회 곽요셉 목사	00 말씀의 창 - 대구은성교회 오세원 목사 30 스캇 브래너 목사의 다윗 시리즈
	20:00	00 올포원	20 생명의 말씀-김정민 목사(금란교회)	30 [말씀] 화종부 목사(남서울교회)	10 내 폰안의 교회 30 말씀의샘터 거룩한빛운정교회 유정상 목사	00 비전메시지 - 강남비전교회 한재욱 목사 40 비전메시지 - The Life 지구촌교회 김인환 목사
	21:00	00 CBS성서학당:누가복음 59강 - 송태근 목사 ""검을 사라고?"" (본문 - 누가복음 22:35-46) 50 CBS 뉴스	00 김성혜 총장의 비전투데이 30 조셉 프린스 목사의 뉴크리에이션	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40 저스트 텐 미닛 〈제이어스〉 5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저녁운동)	00 비전설교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 30 GOODTV 뉴스 50 노크토크	10 힐링토크 회복
	22:00	10 더 바이블	00 CTS 뉴스	00 [컨퍼런스] 돌보는 교회 - 학대에 대응하기 3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50 TV데일리큐티 나무향기	00 C채널 매거진 - 굿데이 30 비전 월드미션
	23:00	10 새롭게 하소서:[현실판 사랑의 불시착]'김승근 목사, 박예영 이사장'	00 신앙에세이 00 7000미라클-열방을 향하여 50 오정현 목사의 비전묵상 3분 미라클	10 손기철 장로의 말씀치유집회	00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30 말씀의샘터 안산주님의교회 오영석 목사	00 C채널 특집 다큐멘터리 예수님의 여정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24:00	00 모두의 거실 50 잘 믿고 잘 사는 법	00 콜링갓 50 어린이 찬양-우리 찬양팀을 소개합니다 한 곡 감상하기	10 CGN 투데이 30 생명의 삶 50 기독교 세계관 아카데미	00 이석목사의 명쾌통쾌	00 오직 주 만이 50 찬양하라 내 영혼아
	1:00	00 이 땅을 사랑한 예수의 증인들 10 영프레이즈 40 TV 설교/임석순 목사의 주일 아침 강단	00 이태원의 I Love Jesus 30 〈교회행전〉 나의 고백 10minutes 50 TETELESTAI I 테텔레스타이	3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경산중앙교회- 50 나침반 바이블 - 이희성 교수	00 스캇브래너목사의 사도행전 강해 30 문방구	00 김학중 목사의 드림워십
	2:00	30 TV 설교/신길교회 이기용 목사	20 삶이 변하는 시간 25분-김병삼 목사 50 #클립CCM	20 [말씀] 김형익 목사(벧샬롬교회)	00 하나님愛사람	00 꽃보다 목사 시즌2 30 힘내라! 고향교회2
	3:00	00 더 바이블	00 Let's Talk in English 20 매일 무릎기도 30 로드가스펠	00 [말씀] 이웅조 목사(갈보리교회) 30 [말씀] 김한요 목사(베델교회)	00 주일예배실황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	00 오직 주 만이 - 영어 자막 40 김병삼 목사의 크리스천베이직
	4:00	00 CBS성서학당:하나님의 질문 2강 - 한기채 목사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본문 -창세기 4:1-12) 50 CBS 교회소식	00 TV찬양예배 Sing Sing Sing 20 오늘의 양식 30 클래식 생명의말씀-박조준 목사	10 [말씀] 마크최 목사(뉴저지온누리교회)	00 은혜와 찬양 이리신광 새빛워십 20 GOODTV 새벽예배 굿모닝 지저스 대한교회 윤영민 목사 50 TV데일리큐티 나무향기	00 매일말씀 10 찬양하라 내 영혼아 20 C채널 명설교 다시 복음으로 - 꿈의교회 김학중 목사

CCM 칼럼

찬송의 의미



저에게는 한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구원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의 감격이 없는 생활, 기쁨이 없는 표정, 찬송이 없는(너무나도 형식적인)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서는 과연 찬송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다른 것은 잘 모르겠으되 찬송하는 것만큼은 한국교회가 철저히 비성서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그릇된 가치관으로 찬송하면서도 마치 그것이 경건의 방법이요 주님 앞에서 공인된 유일한 예배인양 무서운 아집에 사로 잡혀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 교회내에서는 '주찬양 선교단'으로 부터 시작된(?) 잔잔한 찬양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결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커다란 해일이 되어 이 강산을 뒤덮었습니다. 기독교 서점마다 각 선교단, 복음성가 가수의 TAPE들이 넘쳐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살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찬송의 세속화' 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학생들이 일부 '찬양 사역자 (구약 시대에는 찬양대를 레위지파가 예배, 제사와 함께 맡았음)'들을 우상처럼 뒤 따르고, 예수 공연 전문가들이 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가사 내용은 안중에도 없고 리듬이 경쾌하기만 하면 춤추는 데 정신을 다 빼앗기는 모습을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의 모습은 찬송의 꽃은 피었으나 향기가 없고 바울의 고백보다 진한 외침은 있으되 찬송의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열납되지 않고 세상잔치, 교회잔치로 끝나버리는 소용없는 일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온 교회는 찬송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학문적이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과연 찬송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본질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바로 알고 그분이 원하는 방법대로 드려질 때에 비로소 그 찬송은 하나님 보좌 앞에 향연으로 피어오를 것입니다.

"찬송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곡조 붙은 기도"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정답일까요?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찬송은 결코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기도의 요소도 있습니다만 기도의 한 부류로 분류하면 안 됩니다. 찬송의 문자적인 바른 해석은 "하나님의 덕을 칭송하는 노래"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합니다. 시대와 형식의 구별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능을 높이는 모든 노래를 일단은 총체적으로 찬송이라 부르면 됩니다. 또한 우리 성경에는 찬송(讚頌)이라는 단어와 함께 찬미(讚美), 찬양(讚揚)이라는 비슷한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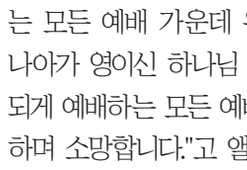
여러분 찬송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찬송을 신앙인들의 노래? 예배를 돕는 노래? 정도로 생각하셨나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를 찬송은 신앙인들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신앙심을 일깨우는 노래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찬송이 성도들의 정서에 유익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울러 예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심령을 평안케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 때문에 찬송을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앞에 열거한 그런 현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찬송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부수적인 소득(?) 즉,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지 찬송 자체에서 나오는 어떤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동안 찬송을 너무나 많이 왜곡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에서는 찬송을 쓰다 버린 걸레 자루처럼 방치해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목적을 위해 찬송을 도구화하기가지 했습니다. 흔히 기도원이나 부흥회를 하는 교회에서 볼 수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찬송 도취증입니다. 찬송은 무엇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찬송은 그저 찬송일 뿐입니다. 그래서 가장 순수한 동기에서 불러야 합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은 주일날 성가대원들의 찬송을 자신이 심사위원이라도 되는 것처럼 늘 평가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 곳이라도 틀리면 성가대원들에게 왜 죽을 쒔냐고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장로님에게는 틀리지 않고 제대로 하는 찬송은 밥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죽이나 누룽지가 되는가 봅니다. 그러나 더욱 문제인 것은 많은 성가대원들 자신이 그 장로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찬송이 끝난 후 성도들이 아멘으로 힘차게 화답하면 흐뭇해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속으로 '에이 오늘도 죽쒔나 보지?'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아니라 예배의 분위기를 위해서 즉 성도들을 의식해서 선곡했고 또 그런 자세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요즘 젊은이들(저 자신도 포함해서)은 대개 찬송을 자신의 음악적 취향에 따라 선택하고 즐기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찬송을 받고 싶어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랑곳 하지 않고 오로지 내 취향만을 우선하는 경우입니다. 이 역시 찬송이 예물임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 뜻없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한 마디로 찬송을 예물로 생각하지 않고 신앙인의 정서와 예배 분위기를 위한 보조 수단정도로 인식해 온 한국 교회의 일반 적인 찬송 가치관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왜 찬송이 예물이 되는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찬송의 시작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부터 비롯 되었습니다. 아울러 그 명령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 찬송 받기를 기뻐하고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찬송은 우주 공간을 울리는 메아리가 아니라 주의 보좌 앞에 피어나는 향연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가운데 다윗은 찬송인이요, 오늘 우리들의 찬송 지휘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찬송교사로서 여러가지 본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예로써 그가 한 찬송의 내용을 깊이 상고해 보면 어느 것 하나 결코 허공을 향한 탄식이나 외침이 아니라 살아 계셔서 지금 자기 자신을 인도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ccmsongs.com 운영자 제공

추천 새앨범

리드워십퍼 정규앨범 1집 '상한 심령' 발매



2018년에 '그가 찔림은' 싱글앨범으로 데뷔한 리드워십퍼가 21일 '상한 심령'이라는 정규앨범을 발매했다.

타이틀 곡 '상한 심령'을 포함하여 싱글앨범에서 발표했던 '그가 찔림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등 총 10곡이 수록되었다. 깔끔한 목소리와 녹음으로 음원사이트에서는 대부분의 곡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리드워십퍼 관계자는 이번 앨범을 소개하면서 "오랜기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예배사역을 감당해온 리드워십퍼 안에는 역설적이게도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늘 존재했다"며 "계속되는 질문속에서 우리는 성경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구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말했다.

그들이 찾게된 구절은 시편 51편 17절이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리드워십퍼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밖에 우리의 구원이 없으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자 하는 자들의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십니다."며 "우리가 자백하는 많은 죄악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십니다."고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을 통해 내려온 은혜로 만들어진 곡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시편 51편 19절 "그 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 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말씀대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는 상한심령으로 나아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고 앨범에 대한 소개를 나눴다.

조성호 기자

'미스터트롯', 기부금 미션 모은 약 1천9백만 원 기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이 TV조선(대표 김민배) 경연 프로그램 '미스터트롯' 측이 기부금 미션에서 모금된 후원금 1,895만6천원을 국내 빈곤아동을 위해 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미스터트롯'의 본선 3라운드 '트로트 에이드'를 통해 모금되었으며, 마스터로 활약중인 가수 장윤정씨가 추가로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한다. '트로트 에이드'는 전 세계 슈퍼스타들의 자선 공연인 라이브에이드(Live Aid)를 모티브로 한 미션으로, 트롯맨들이 펼치는 무대를 직접 관람한 방청단이 기부에 동참하는 국내 최초 자선 경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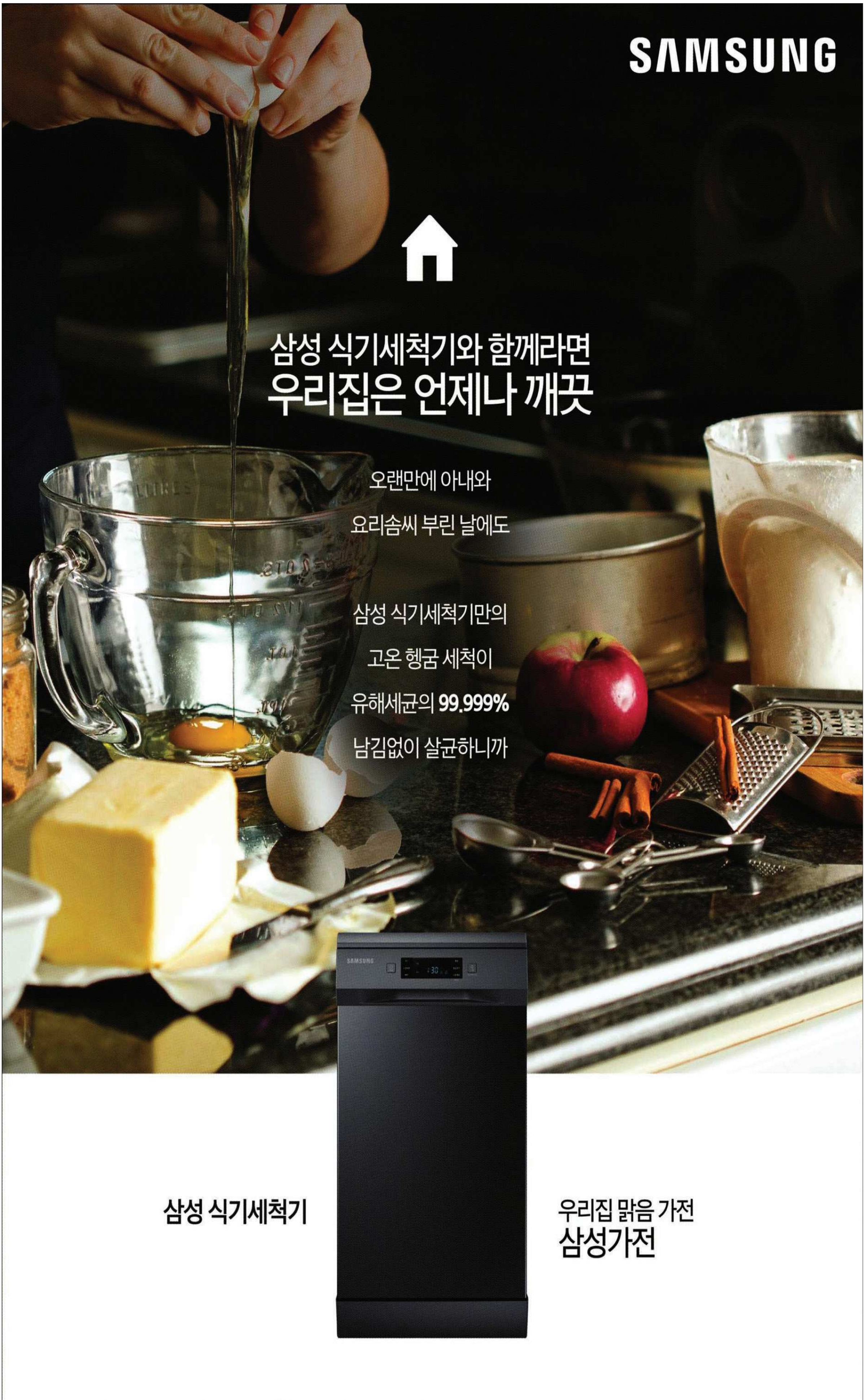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온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에서 기부와 경연을 결합하여 후원금을 조성하고 이를 국내 빈곤아동을 위해 후원해주어 감사하다"며 "소중한 후원금은 국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민수 기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과 '미스터트롯' 본선 3라운드 '트로트 에이드' 우승 팀(뽕다발)이 후원금 전달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S마크 검사기준(SC-9390-01)으로 시험하였습니다.(표준코스+고온헹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시험치로 실제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